朝鮮日報
夕刊
三十日(火)
本紙朝刊ノ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璿潞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振替口座京城八〇〇番 (代表) 光化門二八〇〇番
八七八番 營業局 九三八番 編輯局
〈購讀料〉
一個月 金一圓 一個年 金十二圓
(郵稅共 本社發送 先金 地方도同一)
〈廣告料〉
普通 一行 金一圓二十錢 特別 一行 金二圓
(外略)

和協委員會問題는 聯盟理事會所關

決裂의責任은에國에는업다

伊覺書에對한에國回答

【電通아디스아베바卅九日發】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政府가 去二十三日에 通牒한 覺書에 對한 同答을 二十八日 伊太利政府에 通告하엿는데 同答內容은 左와如하다

스케베닝겐의 和協委員會決裂의 責任을 伊太利側은 에디오피아로 돌리나 에디오피아政府는 그責任을 負할수업다 同委員會의 伊太利側委員은 에디오피아의 主張을 傾聽할 雅量이업고 또第五和協委員會의 任命을 拒否하엿슴으로 我國에서도 拒絶을 不得已하게되것이니 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側의 委員이 에디오피아의 主張總從拒否의 事由로 一九〇八年의 伊에國境確定條約은 이미 實効가업게되엇다는 解釋을 受諾할수 업다 도리혀 本條約이 일할事件의 責任探求의 必要上 不可缺한것이라 信한다 따라 에디오피아側의 和協委員에 對하야主張撤回의 訓令을 發할수잇섯든것이다 그리고 에디오피아政府는 今回의 問題는 聯盟理事會의 五月二十七日決議한 直接關聯되는 問題임으로 聯盟理事會가此를 決定할것이라고 思惟함으로 和協委員會 糾彈하기는決코 안된다

瑞典서「에」國에 通商代表派遣

【電通스톡홀름二十八日發】瑞典外相 산도라노氏는 에디오피아와의 通商條約交涉을爲하야 瑞典으로부터 아디스아베바에 代表를 派遣하게다는 旨를 今日言明하엿는데 伊에紛爭이 急迫하고 對에武器禁輸問題가 微妙한 關係에잇는이때에 同外相의 言明은 非常히 注目을 끌엇다

話題解說 「스에즈」運河

伊에紛爭問題가 急迫의 度를 加함에따라 列國의 輿論이 極度로 緊張되여 잇는此時 英國政界一部에서 經濟制裁手段으로 「스에즈運河를 閉鎖하라」는 說이 有力해졋다 더욱이 伊에紛爭問題를 議決할 聯盟理事會의 開會를 目前에 두고 이와가튼 說이 英國官邊에서 擡頭되는것은 注目될일인데 萬一 聯盟規約第十一條一項의 規定이 可決된다고 하면 英國은 聯盟規約에 依하야 同運河를 閉鎖할 立場에 잇스며 同時에 聯盟規約에 依하지안는다하도 戰時交通에 對하야 八日目으로 通行條約에 對하야 名目의 緊張을 命할수잇는 資格을가고 잇는마큼 그 歸趨如何는 더욱 注目되여잇다

◇

스에즈運河는 亞細亞와 阿弗利加 兩大陸을 區分하는 스에즈地峽을 橫斷하야 地中海와 紅海를 連結하는 海洋運河로 經濟的으로 또는 政治的으로 歐亞 兩大陸을 連結하는 重要한 運河이다 同運河는 有名한 佛蘭西人 레셉스氏가 一八五四年에 計劃을 完成하엿고 一八六九年에 開通되엿는데 資本은 英佛兩國에 占하여잇스며 全長은 一六〇粁 幅은 六五—八〇米 水深은 九米 에達하는데 同運河의 完成은 歐亞連絡이 途中에서 停滯하는일이 업시通航할수잇게되엇다 이運河는 一八八八年 콘스탄치노풀會議에 依하야 原則的으로 平時와 戰時의 別이업시 또는 國籍에 關係가 업시 商船과 軍艦의 通航이 認許되여잇다

◇

그러나 英國은 埃及占領期間中 그行動의自由를 一般的으로 留保하야 本條約의 本質的要項을 事實上으로 無効케하엿다 戰時에 잇서서 이運河가 英國의 生命線의 一部가 되여잇는것은 두말할것도업는 일이나 世界大戰當時에는 英國이 이運河와 그名義上 所有國인 埃及을 自由로 取扱하야 數次 이運河에 對한 獨逸의 進擊을 막나스나 모도 失敗에 도라가고 未來 同運河의 支配權問題는 아직 未決로잇스나 그러나 그實權은 英國이 掌握하고 잇는것만은 事實이다

蔣氏南京歸來를 四巨頭連名으로電請

【電通上海二十九日發】浙江省主席 黃紹雄氏는 二十九日 午後 羅鐘省主席 陳儀氏및 何應欽氏等을 訪問하고 對日問題에 對하야 靑島에 잇는 汪精衛氏와의 會見에서 受한 指示經過에 對하야 報告하고 다시 對日折衝의 具體的問題에 對하야 協議하얏는데 汪精衛氏의 意圖하는바는 蔣介石氏의 南京歸來를 希望하고 잇슴으로 다시 汪精衛、何應欽、陳儀、黃紹雄四氏가 連名으로 四川의 蔣介石氏에 對하야 南京歸來를 要請하는 電報를 發하기로 決定하고 直時 打電하얏다

滄石線敷設次로 南京서交涉開始

太沽까지延長建設도

【電通北平廿九日發】平漢線石家莊、津浦線滄州間의 河北省平野地帶橫斷滄石線百三十八哩는 昭和四年 千九百萬元으로서 日本側과의 借款假契約이 成立되어 日本이 그數設權을 가젓슴에도 不拘하고 中國側은 右契約內容에 疑議를 提出하야 有耶無耶에 今日에 이르럿는데 日中兩當事者間에 北中經濟提携의 試金石으로서 本鐵道敷設實行을 期하기로되어 過般來 南京에서 須磨總領事와 南京政府鐵道部間에 復活折衝이 開始된데 呼應하야 北平서도 北寧鐵路局長 殷同氏가 地方的交涉에 當하야 不遠 具體化할것이 確實하게되엇다 그리고 本交涉은 滄石間旣得權外에 滄洲와 太沽間五十哩延長을 包含하는 全長百八十八哩의 石沽鐵道建設을期하는것으로 滄石線自體의 係爭解決을 기다려 日中合辦北中投資會社가 成立되면 卽時日中專門家로된 調查測量隊가 이미 前年에 一部의 基礎工事를 終了한 滄石線再工事에 着手할터이다 그리고 石沽線은 竣工된때에는 北中經濟線으로 特히 山西無煙炭及河北井陘炭輸送과 北中一帶로부터 產出되는 棉花輸送幹線으로서 重要한 役割을 擔任하게 될터로 太沽築港과 아울러 本問題는 자못 重視되고잇다

總督府職員增員 各官制改正案內容

總督府官制穀物檢査所官制及 判所職員令改正 其他各種事業의 勃興에 伴하는 總督府職員增員의 官制改正案은 山名審議室事務官이 携行渡東하야 再昨卄七日夜 五十日만에 歸任하엿는데 總督府、穀物檢査所、南官制改正의 內容은 如左하다

一、總督府官制改正
(가) 內務局技師一名 技手一名 屬一名 市街地計畫令實施에 伴하는것
(나) 殖産局 技師一名 石油專賣法施行에 依하는것
(다) 農林局 技手四名 蠶絲業令施行과 稻作指導職員의 配置에 依한것
(라) 專賣局技手一名 屬一名 技手十名增員 關山鎭慶에 依한 專賣局官制改正、繩叺事業獎勵에 伴하는 道技手四名 (平南、黃海、江原、平北各一名) 秋風嶺觀測所支所 新設에 依한 技手三名의 增員과 이미 設置된 鐵道職員에 伴하는 改善等이 主要한것으로 모다 今年度에 實施될것이다
二、穀物檢査所官制改正
技手百二十七名 屬六名 穀物檢查員增員에 伴하는것
三、裁判所職員令改正
判事四名 檢事四名 書記四名 看守十九名 看守長一名 看守八名 鎭南浦、新義州法院支廳 復活과 麗水 登記公證事務出張所 設置와 小鹿島刑務支所新設에 作하는것

米、無條約狀態對應 優位確保를計畫

英海相의比率主義放棄聲明을重大視

國務、陸海三省秘密協議

【電通華盛頓二十九日發】米國國務、海軍、陸軍三省當局은 호어英外相이 去二十二日 英國下院에서 發表한 比率主義 軍縮放棄聲明을 重大視하고 爾來 數回에 亘하야 秘密裡에 聯合協議會를 開하고 太平洋에잇서서 米國의 優位確保를 包含한 數項의 重要協議를 繼續하야 華府倫敦兩條約滿期後에 生할 無條約狀態의 可能性에 備할 具體的善後策을 此際에 確立할 方針下에 着着調査檢討를 進捗하고 잇다

볼리비아公使赴任

【電通橫濱電話】二十九日正午橫濱에 入港한 和蘭汽船 비야카리마스·도라마氏는 夫人令孃을 同伴하고 來日하야 即時 向東하엿다

◇八木氏謝電 ═總督府醫務局醫務課東務官으로잇든 八木信雄氏는今次黃海道警察部長으로榮轉한바二十九日夜海州로부터 本社에 如左한謝電이잇섯다

只今着任하엿습니다 在職中의 厚誼를 深謝합니다

美濃部博士處分 來月初最後斷案

【東京電話聯合】小原法相은 美濃部博士의 司法處分決定에 關하야 愼重한 態度를取하고 檢察當局의 豫備調査도 大體完了되엿슴으로 二十九日 檢察當局首腦部會議를 開하고 協議한結果 來月初에다시 檢察當局首腦部會議를 開하야 最後 斷案을 내릴方針을 決定하얏다

勞働組合合同 今秋에實現可能

【電通東京電話】前日 阿部磯雄 阿野番、鈴木文治等 三氏로부터 合同交涉을 受한 總同盟及 全國勞働에서는 그後各各正式機關에 問議하야 二十九日午後 合同協議會를 開催한 結果 今後의具體條件에 對하야 松岡總同盟會長、河野全勞委員長에 一任하기로 하엿는데 勞働組合代表는 今年十月末 年次大會까지는 合同條件을 決定하여가지고 右大會에 上程하야 느저도 十一月에는 合同大會를 開催하자는 意向이 잇스므로 兩組合의 合同은 特別한 事情이 發生되지 안는限 가을까지는 實現될것이다

人事·集會

◀金泰錫氏(咸南道參與官)入京中 本社屋新築落成人事次 本社來訪、大塚旅舘投宿
◀黃利善氏(載寧商業家)入京中人事次 本社來訪、東洋旅舘投宿
◀尹永培氏(高陽郡龍江面長)水災救濟感謝人事次來社
◀錢鎭漢氏 本社新築社屋落成人事次來社
◀金秉鎬氏 同上

第二飛行團을 朝鮮會寧에設置

【電通東京電話】今日 官報로서 公布된 陸軍航空關係軍令勅令中 第一飛行團은 各務原 第二飛行團은 朝鮮會寧 第三飛行團은滿洲에 設置키로되엇다

航空本部令 勅令으로公布

【電通東京電話】航空軍事整備强大를 必要하게됨에 따라 航空本部令을 改正하게되여 三十日官報로서 陸軍航空本部令이 公布되엿다 右航空本部는 陸軍航空에關한 事項의 調査研究、試驗及 立案을 行하야 航空兵科諸軍隊 當該兵科專門敎育의 一致進步를 圖하야 所管學材의敎育 航空에關한 器材、燃料等의 整備及 檢査에關한 事項을 掌理할것이다 그리고 右와함께航空兵備에 關하야 左의勅令이公布되엿다

一、陸軍航空技術研究所令
一、陸軍航空廠令
一、熊谷陸軍飛行學校令
一、陸軍航空技術學校令
一、所澤陸軍飛行學校令
一、濱松陸軍飛行學校令
一、飛行團司令部令

其中新設에 關한 長官及官制改革의 結果業務擴張에 伴한長官更迭은 八月一日의 陸軍異動에잇서 各各 正式으로 任命될터이다

農林省豫算總額 一億三千四百萬圓

【東京電話聯合】農林省에서는二十九日 午前十時 農相官邸에 省議를 開하고 十一年度 要求豫算等을 審議한結果 豫算總額 一億三千四百萬圓中 經常豫算六千七百六十六萬圓 增加豫算 純新規要求五千四百四十萬圓 旣定經費의 繼續事業一千二百萬圓 計六千六百四十萬圓을 決定하고 八月初 大藏省에 提出하기로되엇다 그러나 增加豫算 六千六百四十萬圓은 十年度豫算에 比하면 四千三百餘萬圓이 減少되엇스나 이것은 匡救事業中止에依한것이다

明治天皇御例祭

【電通東京電話】三十日은明治大帝神去하신 御命日에該當함으로 宮中皇靈殿에서는二十九日 御親拜하신 天皇陛下 御直拜下에 御禮拜를 御擧行하시엿다

國民總動員으로防備工作을强化하고잇는緊張한에國軍勢

米、中立維持法案 今議會通過可能

次期議會까지世界戰의危險잇다고

急速히審議코저努力

【電通華盛頓二十九日發】北米合衆國을 直接關心事가아닌限 모든參戰의 危險에서 救할루즈벨트大統領의 中立維持 立法計劃은二十四日發表以來 多大한興味를 喚起하고 上院의有力者들은 大統領이 아모쪼록 本議會에立法化하고십다는 程度의 意見을 徹退的이라고 騷然한 世界는 次期議會까지 戰禍에 陷入할 危險이 잇슴으로 꼭今議會에 中立維持立法을 完成치안흐면 안된다고 主張하야 支持者를 增加코저 大端히 努力하고잇슴으로 大統領이 이때문에會期延長을 企圖치안드래도 急速審議에依하야 通過될 可能性이 豫想되에至하얏다

五月末國庫現計 所得稅關稅增收

【電通東京電話大藏省發表】五月末現在의 昭和九年度國庫歲入出現計는 如左한데 租稅에잇서서는 景氣好況維持와 貿易進展에 依한 所得稅와 關稅增收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九千四百萬圓 九年度豫算額에 比하야 六千八百萬圓의 增加를 示하고 自然增收도 主稅局의 豫想대로 七千萬圓程度를 推算할수잇는것이 確實하게되엇다(單位千圓)

▲歲入 九年度 比前年
經常部 一、一三九、三三八 減六〇、八七五
臨時部 八九九、九〇〇 減三三六、五八六
合計 二、〇三九、二九五 減六九八、四六一

▲歲出
經常部 一、三三四、四四三 減〇四、三三一
臨時部 九三七、九一三 減一二、九六七
合計 二、二七二、三五六 減八〇三〇〇

中國四省의水難被害 被害總額五億元

罹災民數約一千萬人

【上海二十九日發聯合】國民政府의 命令을 受하고 水害各地를 視察하고 二十八日歸京한 徐中央委員의 報告에 依하면 湖北、安徽、湖南、廣西四省의 水害는 自못 甚大하야 罹災民의 數는 約一千萬人을 넘고 水沒한 田地、田畑十平方키로에 達하야 公私를 合하야 約五億元을 네리지 안호리라고 한다

中等學校代表者 松田文相에反對陳情

【電通東京電話】文部省의 學制改革案 中學校四年制에 反對하고 起立한 全國中學校代表者會議의 總意를 가지고 二十九日午前 添田文部次官에게 陳情한 淸水府立麻布中學校長以下의 五校長은 다시 午後四時 文相官邸로 松田文相을 訪問하야 反對陳情하고 同三十分 辭去하엿는데 다시 麻布一中에 開會中인 全國中學校代表者會議에 文部省首腦部와의 會見顚末을 報告하야 今後의 運動方法에 對하야 協議를 行하고 午後五時半 會議를 終了하엿다

閑題非閑 (一)

노타이와廢周衣

═生活適應의一小案═

安在鴻

×

今年은 乙丑以來 처음보는 京江의洪水가 갓가스로 비켜나자 검질긴 장마에 심청사나운 무더위가 사람의몸에심여들어 흐르는땀이 것잡을수업다 百度가가운 더위는 上海方面에서 소문노픈터이지마는 朝鮮의더위도 九十度線에는 항용오르나리는것이니 치운나라이오 또더운나라인것은 大陸的인 朝鮮氣候의 特徵이다 生活은 自然에의 適應을 要하는것이지라 住宅에 그러코 飮食物에 그러코 또衣服에그러한것은 두말이업다 이제 住宅도 飮食物도 모두 비켜두고 잠간衣服中 두어가지를 말하려한다

×

벌서 數十年前이다 筆者가 너른에 세비로(背廣의訛音이 아니나 歐洲語이다)를 입고칼라에 넥타이를 동여매고 鄕里에돌아가면 절이끈남새도업시 先輩老가「저저!목에 동인것 쯤, 끌러라 보는 사람이 다터울다」고 하든것이다 그때에는 旧老人들의 의례하는 소리어니하고 버르장이 업시 벙긋벙긋 웃섯더니 實은 西洋것이라면 무엇이고 追隨만하는 後進民族의 사람들의빗좃마지기이것을 새록새록 깨닷게되다 칼라에 넥타이를 동여매는것은 氣候가치운 北歐의 禮俗이라한다 男女의 風俗이 만혼點에서 禮俗의 外에는 西人들은 구로되어 女子는 팔과 억개를 오롯으로 내노는것이 禮服이면서 男子에 限하야는 목등까지 짜매다는것이 우선틀린것이겟는데 東洋에서도 더운여름에 사는우리들이 구타여 꼭北歐洲의 목싸매는 거북한 禮俗을 언제나 직혀야할 意味와 理由는 아모런업다「노타이」는벌서 流行되는지 오래이니 지금긴말할은 요새말로 六篇十翰인 감으람이 업지안치마는 지금에도 禮裝을때고 맵처서 쉬드럽고 하니맷고 글룰적에 時間걸리는 답답함도 짐생이라 여름에限하야 이것을廢止하되 禮服을要하는 社交나 儀式의 外에는「노타이」로 一貫함이 차라리 조흔것이다 이것은 젊은분네들의 流行을좃는 一時의氣分으로서는아니오 여고에도 自然과 風土와 變換된 情勢에 對한 生活適應의 한科目으로 꼭 그리할必要가잇다 洋服을 입는境遇 노타이로 목미를혀처놋코 선들바람을그리로 바드면서 거리로 活步하는맛은 여간이아닌 生活風味이다

×

年前에 筆者 朝鮮日報에서 周衣廢止論을主唱하야 防寒用과 禮服用으로 꼭 必要한外에여름철에는 大體로廢止또는 制限할 必要를 力說하엿섯다 南道의 某地方에서는 社會團體에서 이것을宣傳하다가 舊制를打破한다는것은 不穩思想의 一表現이라고 某處의 禁止로 中斷되엿고 筆者마친事故잇서서 이를 持續하지 못하엿다 그後에安岳邑을가니 停車場에 모인群衆은 一切로周衣를廢止하야 더운여름에 매우輕快하엿섯고 白頭山을올려보고 내려서 惠山鎭에 왓슬때에 역시그러한 光景을 目擊하엿섯다 과연西北地의 人士들은 生活의實際化가 한거름압서는듯한感을 품고 돌아왓섯다 두루마이는 目下에잇서서 相當한禮服이다 相當한禮服을 無時로 着用하는 것은 禮義東邦이라고 자랑이될가? 謙讓한 儀式도 社交도 아닌境遇에 꼭周衣를입고 장마비와땀치기에 二三日이면 한벌식빨어대려야할 朝鮮의 婦人들도 가엽거니와 依然한虛文縟禮에 實生活이 파먹혀들어가는것을 斷然히 고칠줄모르는 朝鮮人의 生活 適應力이야말로 거의제로에 갓가운일이다

×

일즉은 各女學校 聯合「바사」의 機關라서 每年衣裳品評및그審査會를 열기를 鈴議하든途中 그審查未果하고 마럿다 巨大한宣傳力을가진 各機關에서 이런일을 主唱實施하는것이 困事인양 밧는이 困事아닌者이다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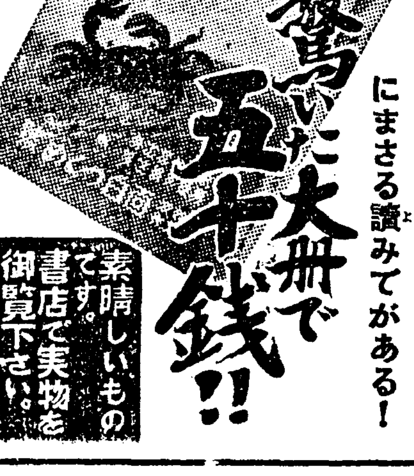
장마만 조금저도 홍수물로 말미암아 食水로 使用키가 困難한 京城水道。

◇ 가뭄 물을마히쓰는 三伏中에 水道에 故障이잇게함은 府民의渴症을 모르는 府政。

◇ 게다가 水源池附近에 傳染病患者까지 發生云云하니

◇ 人力所致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危險千萬의 노릇。

◇ 滿洲에는 黑死病、朝鮮에는 腸窒扶斯、여기저기서 무서운病疫이 날로活躍하는 이때 當局者의 防疫陣도 클일하할것은 勿論이어니와、설사만나도 傳染病이라고 騷動함은「더센스」。

キング臨時增刊 面白づくめ號 大評判
男も大熱狂! 女も大熱狂! 老人も大熱狂! 少年少女も大熱狂!
面白い〳〵
心底から面白い!
流石キングの讀者奉仕!
痛快無類の大增刊!!
小說 講談 落語 漫談 實話 漫才
全部大名作! 全部讀切り!
●體裁は雜誌だが內容は立派な單行本だ!
●而も普通の單行本數册分にまさる讀みでがある!

驚いた大册で五十錢!!
素睛しいものです。書店で實物を御覽下さい。
見よ! 見よ! 萬人大熱狂の大內容!!
●武勇あり ●戀愛あり ●俠客あり ●探偵あり ●出世あり ●滑稽あり
■胸がワク〳〵する
■淚がとめどなく流れる
■手に汗握つて躍り上る
■思はず膽を冷やす
■腹を抱へて轉げ廻る
■ゐても立つてもゐられない
キングならでは斷じて見られぬ
大快篇滿載!
更に大名案口繪あり漫画あり 大賞品山積の五大懸賞あり
賣切迫る! 一刻も早くお求め下さい!

連日豪雨·鴨綠江大氾濫

新義州府外麻田洞 今曉三千戶浸水

罹災民萬七千名、唐慌避難中 刻刻增水、危險漸加

【新義州支局電話】 련일내리는 비에 압록강(鴨綠江) 물은 급작히 증수되여 삼십일오전두시에는 위험수위오『메돌』오십을 돌파하고 의주(義州) 가도부사견교(富士見橋) 제방 약백『메돌』가량이 터저서 이곳으로 압록강물이 너머들어 의주군 마전동(麻田洞) 전부락 삼천호가 침수 되엿는데 그중 집웅까지 침수된가옥이 이천호나되야 리재민 일만칠천여명은 새벽에 제방우로 철도우로 각각피난하고 미처 놉흔곳으로 피난치못한이는 집웅 우에올러간이가만허 자못위험상태에 빠저잇슴으로 경찰서 소방대 청년단 등은 총출동하야 배로써 리재민을 안전지대로 피난식히고 보통학교 교사에 수용구호중이다 그중에는 다리를건너 안동(安東)으로 갈이도만허 아직까지다행히 인명의사상은업스나 가장물은 전부 침수되재로하나도 건지지못하엿다

義州에 도千餘戶浸水

大正十五年의新記錄突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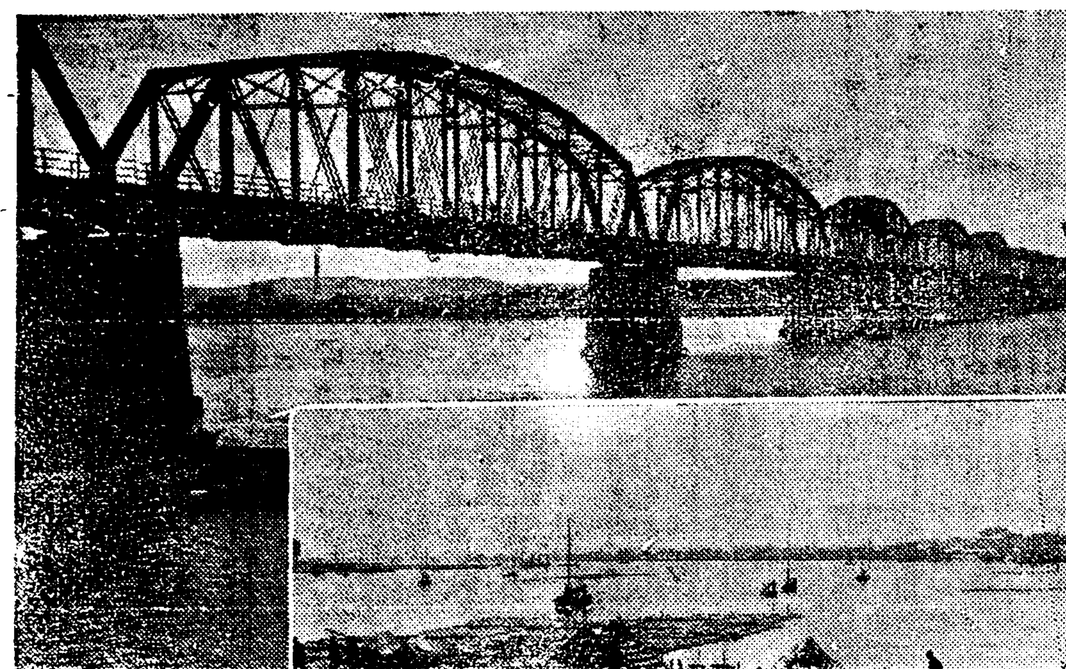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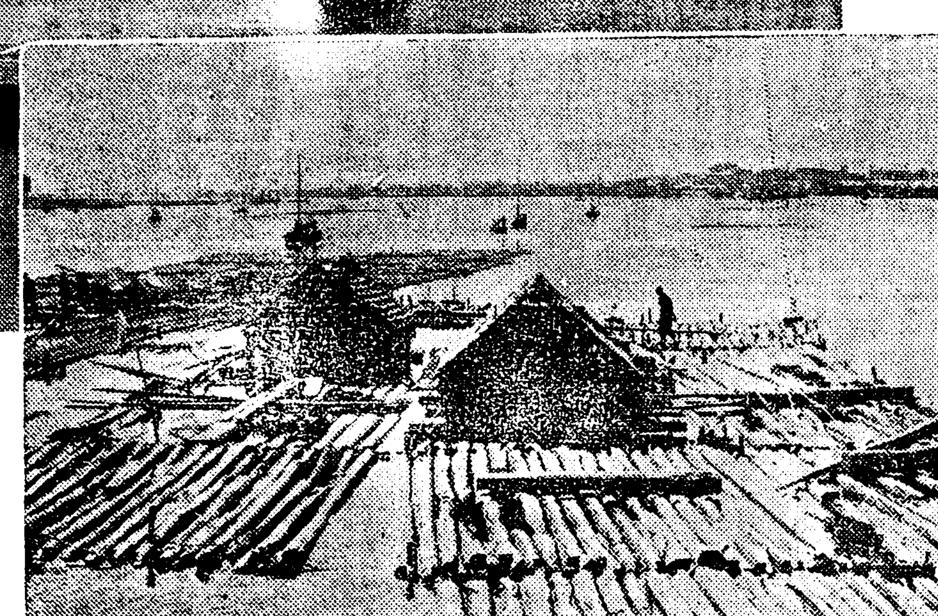
【義州支局特電】 일주일전부터 나리는 호우로 오늘아참에는 압록강증수십메돌을 돌파하야 구룡포(九龍浦) 마사무도리, 어적도(於赤島) 서호동(西湖洞)등의 압록강일대에잇는 모든섬의 침수가옥은 일천여에 달하고잇스며 의주군방의 압록강연안일대는 이해(泥海)로화하야 대정십오년의수해긔록을돌파하고잇스며 더욱히 만조로인하야 부근일대는 위기에 빠저잇다

中之島四百戶浸水

신의주부의 중지도(中之島)방면에도 약사백여호가 물에잠기여 리재민들은 속속놉흔곳으로 피난중인데 수위는 계속 매시간에 『십센치』식이나 증가되야 경찰당국은 고뢰선(高瀨船) 이십척으로써 구조중이다

沙河鎭에 筏木流失 百數十臺

【安東三十日發聯合】 압록강(鴨綠江)의 증수에 의하야 사하진(沙河鎭)대사하(大沙河)에도 삼십일 아침부터 범람하야 오전 구시삼십분에 이르러 물은사하 진역에까지 달하야 선로에 침수되엿는데 각각 증수되며 위협하다 대안신의주(新義州)방면에도 다수가옥이 침수되여 흑하동(黑下洞)은 이십척이상이증수되여 떼(筏)의 류실이 만타 또 통화(通化)부근을 흘러나리든 목업공회(木業工會)의떼 일백륙십대는 구입에 전부류실하엿슴으로 주어모드기에 대단히 힘들모양이라한다

氾濫한鴨綠江 (상)은 압록강 대철교 (하)는 떼목이 내려밀린 하류연안

奉天大連線不通

만주수해로 인하야 불통되엿철도

上流地方大增水 各地에被害甚大

家屋人命被害도만흔모양

【新義州支局特電】 국경지대의 호우로 인하야 벽동군 서문밧그로 흐르는 압록강은 범람되여 수위가 십사미돌에 달하고 민가 이십사호가 류실 되엿스며 천여명 피난민은 산두에서 로숙하고잇다 비는 삼십일 오전 현재로도 계속하야 오는 중인데 교통이 두절되어 상세는 아직 판명이 아니되엿다

通信杜絶로 詳細不明

【新義州支局特電】 압록강상류제방인 자성(慈城)、초산(楚山)、창성(昌城)등지에도 물이 각각으로 증가되야 자성지방의 피해는 사망자가 한명 부상자 세명 류실가옥이 삼동인것이 판명된 모양인데 전화선이 불통되야 아직상세한것은 알수가업다

◇慈城警管內 死者一名▲負傷者三名▲家屋流失四戶▲同浸水二四戶▲山崩三個所

◇楚山警管內 ▲家屋浸水三〇戶

◇義州警管內 ▲家屋浸水二四戶

上流被害詳報

이십구일이래로 압록강(鴨綠江)은 각각증수하야 삼십일오전일곱시현재신의주의 수위는 오미돌사십에 달하엿는데 상류지방은 상금도 비가와서 피해가만흔모양이나 전화가 불통되야자세한것은 불명한바 방금판명된 평북도내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갓다

安東縣低地帶 五百戶浸水

【安東卅日發聯合】 련일 쏘다지는 호우로 압록강 상류지방은 크게 증수가되어 삼십일 오전 여덜시삼십분 안동의 압록강은 십시칠오촌이나 증수가 되엿다 그리하야 강안통(江岸通)은 상하친수가 오백여호에 달하고 동열한시 만조에는 이천이상이터 증수될모양이어서 하류도구(下六道溝) 저지의 천여호조선、만주인은 목하 안동수비대 압록강 제지회사에 피난중이다

京圖線에共產軍 昨夜,列車顚覆襲擊

新京附近土門峯城子間 死傷者만二十五名

【電通新京廿九日發】 이십구일오전 여섯시 오십분경 신경을 떠나 길림(吉林)으로 가는 려객렬차가 토문봉(土門峰) 영성자(營城子) 사이에서 수해로 인하야 천천히 운전중이든중 돌연 잠복하엿든 토병의습격을 바더 일、이、삼등려객을 만재한채 전복된 현장은 일대 아수라장을 이루엇다 급보를 접한 제일 구원렬차는 오후열시오십분 신경으로부터 현장에 급행하엿는데 피해가 클 모양이다

【電通新京三十日發】 조난렬차의 승객은 일본승객 여덜명 이삼등에 이백칠십여명과 경비병 일곱명 도합삼백여명이나 되는데 오늘새벽까지의 판명된현장에서의 사상자는 구원렬차로부터 철도총국(鐵道總局)에대하야 다음과가티 보고가왓다

▲(死者) 日本人八名 滿洲人三名 露人一名 ▲(重傷) 日本人五名 滿洲人五名 ▲(輕傷) 日本人一名

▲(行方不明) 日本人一名 滿洲人二十名

共產軍은約二百 救援守備隊續發

【電通新京二十九日發】 토문봉(土門峰)에서 조난한 렬차를 후원하기위하야 신경、구대(九臺)길림(吉林)의각수비대에서는 ○○○명이 출동하엿고 오후십시에는 다시 사상자를 수용하기위하야 위생대(衛生隊)가 신경발 현장에 급행하엿다 동렬차는 수해때문에 길림서 신경으로 승객을 만재하고 다시 도라가는 도중이엿다 오후 구호대의 보고에 의하면 수는 약이백명으로 장총권총등을 휴대한 공산군인데 사상자 이외에 인질로서 탈취되자도 다수잇는모양이다

【電通新京三十日發】 재삼차 구원렬차는 ○○의 ○○대 ○○명을 탑승케하고 오늘새벽 두시에 조난현장으로 행하엿다 한다

日本人만보면 두말업시銃殺!

遭難者의現場光景談

【電通新京三十日發】 길림(吉林)에서 만주사변이래전당포 영업을하는 조선인김대흥(金大興)씨는현장전경을 다음과 가티말한다

렬차가 전복되지 불과삼분에 토병들이 칠엽하엿다 나는하는수업시 삼등석에 쭈구리고 잇노라니 오륙명이 달려들며 『너는 일본인이냐 만주인이냐』고무기에 나는만주어로 만주인이라고 대답하엿더니 그대로 지나가려다가 내좌석미테 숨어잇든 일본인을 발견하고 뭇지도 안코 끌어내서 권총을 대이고 단방에 쏘아 넘어첫다 탄환은그사람의 가슴을 껴뚤으고 내바른편다리에 마젓는데 그후구조를 밧기까지 나는 의식이 불명하엿다 토병들의 복장은 저마다 다른것을 입엇고 일본인을 쏘아죽인자는 쓰메에리양복을 입엇섯다 그러고 만주인은 그대로 두엇고 일본인 이기만 하면쏘아죽엿다

日本人과滿人 多數를拉去

【電通新城三十日發】 오늘새벽한시사십분 구원대로부터 철로총국에드러온 보고에의하면 죽은자는벌서 이십명에 달하야 잇는데 그중에는 독립수비대금촌군조 좌죽간호병의 시체도 발견되엿다。토병은 다수의 일본인을 인질로서 다리고 갓흔산지로 다려갓다

反戰데이압두고 咸興府外에檄文

去春메이데이에도 檄文잇슨곳 警察은總動員搜查

【咸興支局電話】 팔월일일 반전데이(反戰記念日)를 압두고 함흥의 린접지인 함주군(咸州郡)의 주북면、상조양면、하조양면 주지면(州北面、上朝陽面、下朝陽面、朱地面)일대에는 이십구일 밤부터 삼십일 새벽사이에 모필로쓴 과격한 반전격문이 산포된 사실이잇서 함남경찰부와 함흥경찰이 활동을개시하야 반전격문 삼십여매를 압수하는동시에 범인검거에 대활동중이다 그런데 전기부근은 금년 메―데―때에도 격문이 산포되엿든곳으로 좌익운동이 심각한지대이다

松の實

巡查正服窃取 해입고强盜질

【原州】 이십칠일 오전세시경 강원도원주(原州)경찰서 근무순사삼전진(森田進)의 집에 절도가침입하야 방에거럿든 정복、정모、패검(佩劍)등을 훔처가지고 물어가는도중 범인은 자긔가 정복정모를입고 원주시내모 부호의집에들어가서 패검으로 위협하고 돈삼백오십원을 강탈해간 사건이 발생되야 곳소관원주경찰서에서 범인을 엄중수색하든중 이십구일오후세시경에 일으러 원주면상동리(原州面上洞里) 양복상 리강선(李江善)(二〇)의소위인것이 판명되야 곳지명수배하고 범인을 엄탐중이다

北進튼南洋暴君 颱風臺灣을掩襲

電信電話等의破壞가多數 各地列車까지不通

【電通臺北二十九日發】 태풍(颱風)은 오후여섯시경 화련항(花蓮港)을 통과하야 신죽(新竹)방면으로 진행중이다 이로말미암아 대북(臺北)지방도 밤에들며 폭풍이 삼십메돌이나되야 집웅, 간판등이 날르며 가로수가 쓰러지고 고압선이 끈어저서 시내외는 전연 암흑화하야 재향군인 청년단 소방조원등이 총출동하야 경찰당국과함께 경계를 하고잇다 긔륭(基隆)발 야행렬차는 대북에와서 정류하고 그리타 각렬차도 각지에서 운전불통상태에 빠저잇는데 특히 화련항방면은 피해가 상당히만흔 모양이나 방금 전신전화가불통되야 상세한것은 알수업다

【臺北電話聯合】 이십구일 오후열시 현재의 대북부근의 폭풍우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

警察電話切斷一個所 公衆電話切斷五個所 警察電柱倒壞三本 住家小破六戶 非住家小破三戶

方向은西北에 朝鮮은無事

남양의포한 태풍(颱風)이 북으로 올라오는도중 우선대만에와서 맹렬한위세로 다대한 피해를 보이고잇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흔히여름과 가을의 어름에이르러 태풍의피해를보는 조선에서도 이것을다만 물건너화제로만 볼수업는데 이에대하야 경성측후소에서 관측한바에 의하면 그동안 태풍은 석원도(石垣島)남방에잇더니 이십구일밤에 대만을 횡단하야 삼십일아츰에는 대만해협에 잇는데 중심시도(中心示度)는 칠백이십이『미리』가량이며 아즉은 북서로 진행하야 남중국으로 상륙할듯한데 그대로만 진행한다면 조선에까지는 피해가 업슬터이나 그것이 방향을 박구어 북동으로 올라와다가는 피해가 만흐리라고한다

天氣豫報 曇驟雨

石垣島의 南方에 잇든颱風은 昨夜臺灣을 橫斷하야 今朝는 臺灣海峽에잇서 中心示度七百二十二耗可量으로 北西에 進行하야 南中國에 上陸코자한다 日本南東海上의 高氣壓의先端은 依然半島에 突出하고 黃海의流域에는 弱한低氣壓이 잇다 滿洲와 朝鮮은 흐리고 곳곳이 降雨가 잇다

昨日 最高 [illegible] 最低 [illegible] 今日 正午 [illegible] 四七五

安奉線列車 今明間開通

滿鐵에서復舊에盡力

이십팔일 밤이래로 안봉선(安奉線)의 불통으로 신경(新京)봉천(奉天)으로가는 북행렬차는 이십구일 일몰아츰부터 봉천행제차는『노조미』호 특급은 련산관(連山關)에서 봉천행제오렬차는 계관산(鷄冠山)에서 신경행 제일렬차 히까리호는 안동(安東)에서 모다 려객을만재한채 진퇴가궁하야고 조선과만주의 두철도국사이의 통신련락까지 끈치어 운전도못하고 삼십일까지 렬차안에서괴로히 지내는부득이한경우에대하야 철도국의전에 의하면 삼십일 아츰까지에는 만철본선 장대가(張大子)간 대련귀점 삼백사십팔『키로』팔백미툭과 대자하(大子河)제이피일교(第二鐵橋)가 수해로불통중이며 안봉선(安奉線)은삼십일오전 열한시까지에 개통될모양이라한다

안동역에선려객은 상당히만허서 철도국조사에만도 련산관、계관산두역에체류중의 이개렬차 려객을제하고 안동역에는 차속에 이백이십명 려관에 이백칠십명이 각각대기하며 또이세렬차 이후의 렬차로 부상한 려객은 신의주에 약오십명 평양에 삼십명이 대기중인데 만철에서는 삼십일밤안으로 복구개통식힐 예정이라한다

撫順等地의同胞農場

大部分이浸水

【奉天支局特電】 이십삼일이래전만주를 통하야 호우가 쏘다지든 만주(滿洲)본선을 비롯하야 안봉(安奉)봉산(鳳山)봉길(奉吉)각선이 불통이되고 농작물과인축의 피해가 만타 특히 동변도(東邊道)방면의 강우로 혼하(渾河)의물이 갑작히 증수되엿슴으로 무순(撫順)하류연에 잇는동포(同胞)들의 경영농장에 피해가만타 삼십일아츰두시에 봉천동릉(東陵)부근의 수도가 파괴되야 북릉(北陵)일대의 농장은 침수로 전멸상태에 빠젓다 그리고 혼하는 한시간에 두자식 증수중이다

奉天도危險

渾河氾濫、軍隊도出動

【電通奉天卅日發】 이십팔일이래의 호우로 봉천남방으로 흐르는 혼하(渾河)는 이십구일부터 급격히 증수가 되어 삼십일 오전령시경에는 제일제방의 일부가 결궤되어 탁류는 제이제방에 육박하야 탁류의수위와 제방의 노피의차이는 겨우 오촌박게는 아니되엿스므로 수원(水原)수비대와 경찰서원은 새벽세시경에 총출동으로 봉천방호단과 협력하야 경계중이다 로달어나는데 안영군조와 도변특무조장지휘의 부대가 방금토벌을 추격중인바 승객중에는 지명의명사도 다수잇는 모양이나 목하씨명은 미상하다한다

"相當한期間"後면 僭稱相續人有効

山淸金富豪庶子養子間訴訟 高等法院에서庶子가遂敗訴

재래 조선에서는 관습을존중하야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에대한 정통상속인의 양자연매지(緣組)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시효가 무기한 이엇섯는데 금번에 그 무기한이라는것을 제한하야 『상당한기한』이 경과되엇슬때에는 시효로 인정하야 동시에 그 효력이 소실된다는 고등법원의 신판례가 생기엇다。사건인즉 경북 산청군차황면장위리(山淸郡 車黃面 長位里)김영규(金永圭)라는 부호가 대정이년에 사망한것을 계기로 입양과 밋 가독상속이 잘못되엇다는것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되엇다。즉 전기 김영규는 그서자요 이 사건의 원고인 김기식(金箕植)이 잇슬뿐 호적상의 적자가 업섯슴으로 김영규가 사망하자 가족회의를 열고결과 김기식은 서자이므로 재래 조선의 습관상 가독을상속할 권리가업다하야 김영규의 오촌조카요 이사건의 소위 참칭상속인이라는 김성재(金性在)를 사후입양으로 정하야 가독급 유산을 상속케 하엿든것이다 이에 대하야 김기식은 첫재 그부친 김영규가 죽을 때에 자기에게 가독과 유산을 상속하라는 유언을 하엿다는것 둘재 김성재는 김영복이라는 사람의 장남인 관계상 타가에 입양을 하지못하는것이 재래 조선의 관습법인즉 참칭 상속인 이엇다는것의 두가지 리유로 작년봄 김성재를 상대로 진주지방법원지청에 양자연매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엿든것이다 그결과 원고측이 패소를하엿고 대구복심에서도 역시 패소를한후 지난 십구일 경성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엿는데 동원에서는 이것이 조선의 관습법과 중대한 관계를 가진것이만큼 신중히 고려를하여 삼십일에 [illegible] 결과 현재 일본내지에서는 참칭 상속인에 대한 정통상속인의소송권이 오년과 이십년으로 되어잇스나 재래 조선에서는 그것을 무기로 하엿지만 종차로는 재판소에서 상당한 기한후이면 시효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리유로써 상고를 기각하야 결국원고의 패소로 도라간것이다

運動競技

大邱商業勝 (12對9大田中。敗

大朝主催中等野球朝鮮最終豫選準決勝 大邱商業 對大田中學戰은 卅日午後零時五十四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大田中學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十二A對九로大邱商業 快勝하야 決勝戰에드러갓다

◇投捕=大田中學(加川、千年) 大邱商業(徐漢洙、權秉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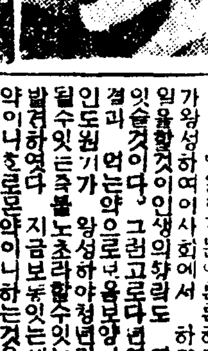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大邱	2	3	2	1	0	0	4	0	A
大田	0	0	1	0	0	0	4	4	0

9—12

떼杯英米決戰 英國三年連勝 米國드듸어敗北

【電通윔블돈廿九日發】 英國對米國 떼杯挑戰試合은 英國二勝의뒤를이어 二十九日複式試合을 行한바 米國組武運이 拙하야 다음과가튼戰績으로 敗하얏다 그리하야 英國은 떼杯戰에 三年連勝의榮冠을 獲得하엿다

휴—스·다—지(英) 6—2 1—6 6—8 6—3 6—3 아리손·반—린(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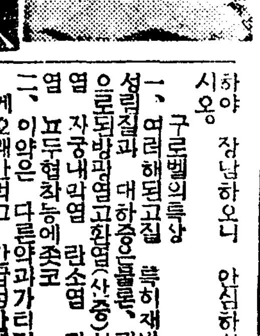
보양 젊어지는보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효력 최고상 최튼튼、동서양에제일유명한약의정분만이느엇답니다

사람이 제일몬저 건강하여야 하고십흔일을하는데 근래는튼튼한 사람이적고 약한분이만허진다。신경쇠약이니 양기부족이니 원기가부족하야 마음대로일을못하게된다。이것은문명이발달됨에따라 생존경쟁이 심하여짐으로뇌를만히쓰게되고 애를쓰고번민이 만허지고 함으로 자연히원기가쇠약하여 빨니늙게된다。따라양기도업고 최후에는신경쇠약이니폐병이니하고 오래못살고 세상을버리게된다

원기가왕성하여 이사회에서 하고십흔 일을할것이인생의향락도 잇슬것이다。그런고로다년연구한 결과 먹는약으로보양을하여 원기가 왕성하야청년과가티 될수잇는것을 발견하엿다 이가이자(KAIZ)는동력인 원기를왕성하게하는동시에 보양보용을 하야생식기를자연히 흥분식히는 작용이 잇슴으로 원기와 양기는 쇠약하여질변이요 류행병을 압것면지는안는다 신경쇠약、양기부족、늑막증、패감업

【약가】 중중엔十원、경중엔五원、송료는 대금인환은 삼십전 선금은무료(약의환약이요)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듯습니다

효력최고상 최튼튼、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독일약(해루미도、르) 도만히들엇고 세계적대신발명한약이되어 보다만히더느엇답니다

구로벨의특상 하야 장담하오니 안심하시고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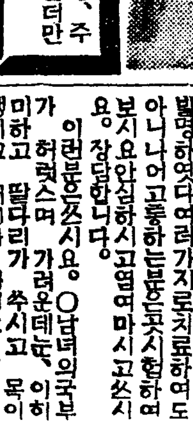
一、여러해된고질 특히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으로된방광염고환염(산증)섭호선염 자궁내막염 란소염 라팔관염 뇨도협착증등에존금

二、이약은 다른약과가티지리하게오래안먹고 만히성간에오래된 고질만성중이라도 일주일내로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 구로벨만은위장이상하는 약이업는데

◇남녀만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증、오줌소태、월경고르지못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별치료를하야보고 별별약을써도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안심하고제일먼저대신발명하신(KUROBEL)、구로벨)을 쓰시오

【약가】 완고약성에九원、만성극다제중에五원、대하증、냉병기타부인용에三원、급성피부인오줌소태에二원、지방선금무료、대금인환은삼십전 (五원이나十원이다일주일분)



매독에는 푸로다—가제일이요

효력 최고상 최튼튼、주사이상이라한다주약을더만히느엇다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서 조유전또는전염으로발생하야대개 다사루바루상륙백륙호주사멧대 히여아겨우일시적으로눌너지만 된지가감안되고여러번재발함으로

이세상에서매독이업서지지안음은 보드라도륙백륙호가지고는불완전한것이증명되다그래서이불완전점을업새기위하야주사가아니고먹는약으로일주일에효력을볼수잇는 매독약푸로다—(PROTER)를 발명하여다여러가지로치료하여도 아니나어고통하는분은곳시험하여 보시요안심하시고염려마시고쓰시요。장담합니다。

이런분쓰시요。○남녀의국부가헐렷스며 가려운데、눈이허미하고 딸다리가 쑤시고 목이 쟁기고 머리가 빠지고 여기저기종기가 터지는데 또창병김창코 허는데 등에신효합니다

【약가】 완고용七원、중중용五원、경중용三원、송료대금인환이면삼십전(약은환약이요)

만일 무슨약이든지 이상업시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 맛고와튼니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 (五)제일큰서양약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경계합시다!

걸리는날이 마지막 무서운흑사병

—만주땅에 환자가 생겻소—

매균자는 쥐와벼룩

이병이 무서우니 저병이 무서우니 하야도 흑사병이란 병보다 더무서운 병은업을것입니다. 거룩흑 죽을사의 흑사병은 그이름부터도 끔찍스럽고 흉악합니다. 다행히 우리조선에는 이때까지 그런무서운병이 들어와 보지를 안햇습니다만 위생시설이 갓득이나 부족한 이고장에 그런병이 들어오는날 큰일이 아니겟습니까? 아니 일전본보의보도로보오면 만주국신경서 흑사병이 발생햇다니 만주와조선은 교통이 빈번한터라 이곳으로 과연번지어오지안하리라고미들 수잇습니까? 이긔회에 흑사병에 대한 이약이를 멧마대해두려합니다.

흑사병은 본래 서양말로 페스트라고 합니다. 그병에 걸리어서 죽는사람은 살가죽이 거머케 되기때문으로 흑사병이라고도 부른것이옵시다 본래 동양에는 일즉이부터 류행햇더랍니다. 에지프트 로마등의 나라에서도 이병으로 고생을 한일이잇고 더구나

십사오세긔때에

는 전구주각국이 이병으로 난리를 격것답니다. 그후 동서양의 교통이 열리자 동양으로 침입하야 명치삼십이년이래 일본서도 멧번 류행을보게 되얏습니다. 일본보담도 중국서는 더만히 류행하고잇서 린근각국으로하야금 항상 조심과렴려를 풀지못하게 합니다.

×

흑사병은 페스트균이잇서서 그균의 전염으로 병이 전파됩니다

그균이소독약에

는극히약하야 천배의 승홍수(昇汞水)에도 곳죽지만은 살가죽으론통코 들어가기때문에 전염은 아조잘됩니다. 흑사병이 류행할때 제일주의할것은 쥐와벼룩이랍니다. 쥐와벼룩이 그병의균을 이리로 저리로작 구옴기어주고 다닙니다. 대개

지절통이몹시나

그균의전염을바드면 일주일쯤은 소위잠복기라고해서 아모렁치안타가 두통이나고 어지럽고 왼몸이찌뿌드하고 몸이떨리며 신열이납니다. 흑사병에는 발병후 수시간후에 곳죽는급성도 잇지만은 이삼일 내일 일주일끼지 끄는증세도 업지안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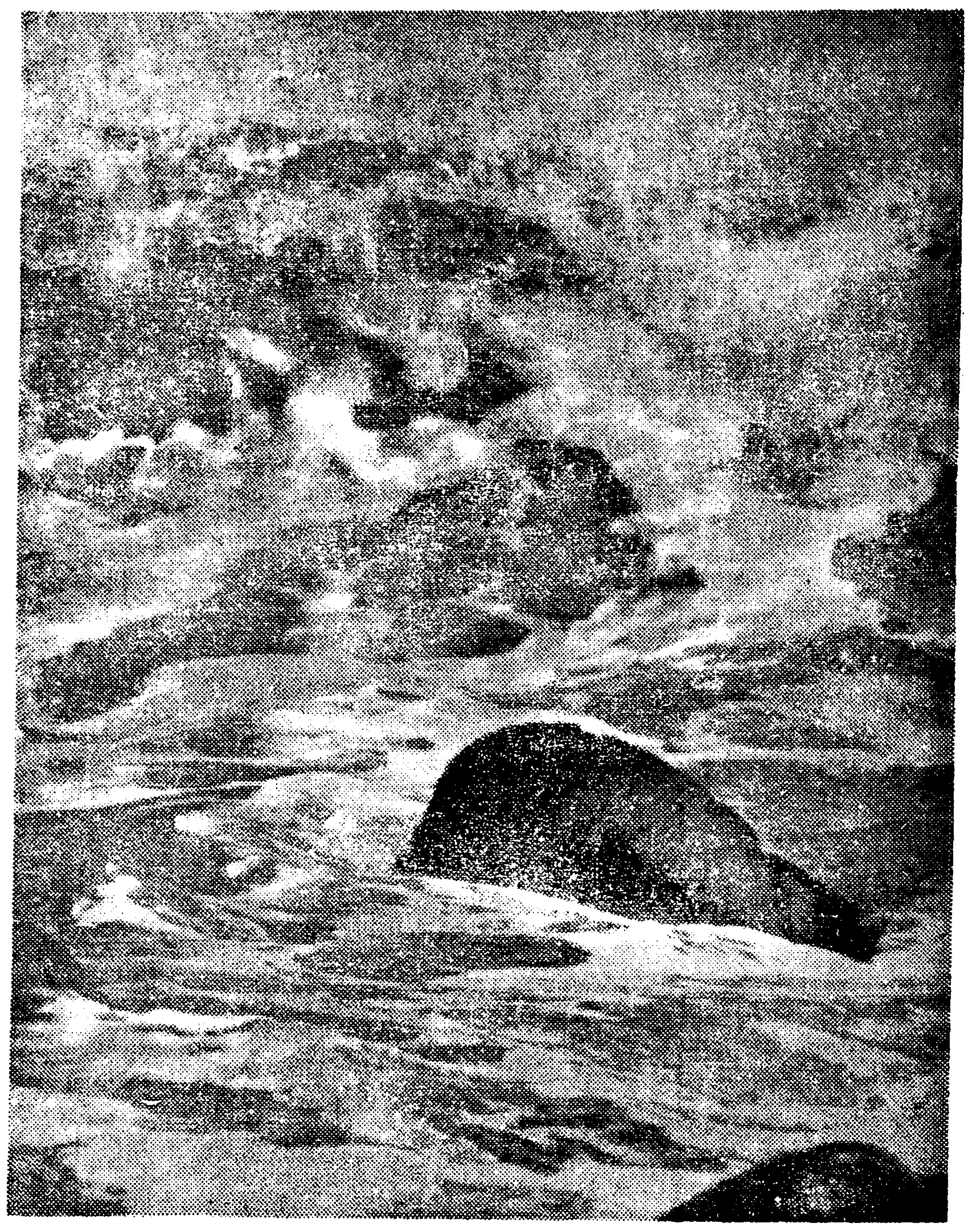
아모러튼지 한번 그병에 걸리어 노흐면 다시 살어나는것은 요행이요 죽는것이 거의 정칙입니다. 약도 별약이 업고 그저 강심제나 먹이어서 심장을 보호할뿐에 끄친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그병에

걸리지 안토록 잘예방하는것이 제일 조흡니다. 그 예방으로는 주택、의복、신체를 깨끗이 할것은 물론이러니와 이미 그병에걸린병자나 그집안을 절대로 가까히 말아야 합니다. 그러고 그병균의 매개자인 쥐와 벼룩을 철저히 잡아 업새도록 해야합니다. 흑사병에도 예방주사가 잇습니다. 그주사를 마즈면 적어도 팔개월기량은 효력이 잇다고 합니다.

밥만히먹으면 둔해진답니다

녜전부터 밥만히먹으면 미련하다는 말이 잇서왓지요 만은 요사이와서 아메리카의 심리학자 레아-드박사는 그것을 아조 학술적으로 증명하얏답니다 레아-드박사는 자긔가 선생노릇하는 대학에서 상급학상세사람과 신입생 세사람을 골라가지고 몃주일동안이나 점심을 먹인후 그들의 두뇌작용을 실험해 보앗습니다 보리죽、우유 실과 가튼것을 먹인뒤는 고기나 면보를 먹인뒤보담 긔억력으로 십분지이쯤 나어지고 두뇌의활동력으로 십분지삼이상 빨러지고 정신통일력으로 거의십분지칠이나 뒤떨어젓더랍니다. 또다시 레아-드박사는 학생을두편으로 난호아가지고 한편은 고개를 나추어재우고 다른한편은 보통과가티 베개를 베워재웟습니다. 고개를나추어잔편이 베개를 베고잔편보담 두뇌의활동이 백분지칠쯤 빠르고 백분지십사쯤 정확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식곤증이라는것은 밥을 먹고나서 혈액이 소화작용을 돕느라고 두뇌로부터 위장으로 옴기어가는 까닭인것입니다. 즉 두뇌에 혈액이 만히 남아잇슬수록 두뇌가 조하지고 그것이 적게될수록 낫버지는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만히먹으면 혈액이 그만큼만히 위장으로 가게되는것이라 총명한사람도 미련해질것이 아니겟습니까?



○○……물결의 히롱……○○

娛樂 라디오『푸로』

三十日(火曜)

◇後六時三〇分 童話『모주라이와여호』 崔仁化
◇同六時五五分 經典解說(一)
◇同八時 農家의時間(農林技師 渡邊保治) 農業經營의優劣 譯講 曹元煥
◇同八時三〇分 特輯라듸오風景 叢石亭 李光洙作 永郞仙人 李紫然 元曉大師魂魄 朴齊行 梅月堂金時習魂魄 尹星畝 楊蓬萊魂魄 金聖雲 玄浚鎬 卜惠淑 金先生 金聖雲 漁夫甲 王人三 漁夫乙 尹星畝 効果 李雲芳 演出 朴珍 出演 라듸오·푸레이·미-팅
◇同九時三〇分 連續怪談 白狐亂舞(二) 申鼎言

七月卅一日(水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어화靑春 一、農夫歌 吳太石 鼓手 池龍九
◇同 一時〇分 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 六時三〇分 吹奏樂 一、行進曲 모다조타 二、拔萃 예수의일홈 三、小品 김애기의게마즘 四、拔萃 우리救主예수 五、小品 農夫의아들 六、行進曲 凱旋 救世軍育學院밴드
◇同六時五五分 經典解說(二)
◇同八時 醫學講話(一) 世專講師 李世珪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 南學 二、弄 三、羽樂 四、還界樂 五、編 金錦桃 李月色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映畵이야기 模倣의人生 徐相弼
◇同九時三〇分 時調外 一、時調 二、지름 三、愁心歌 四、역금 五、寧邊歌 六、孔明歌 鄭錦紅 白雲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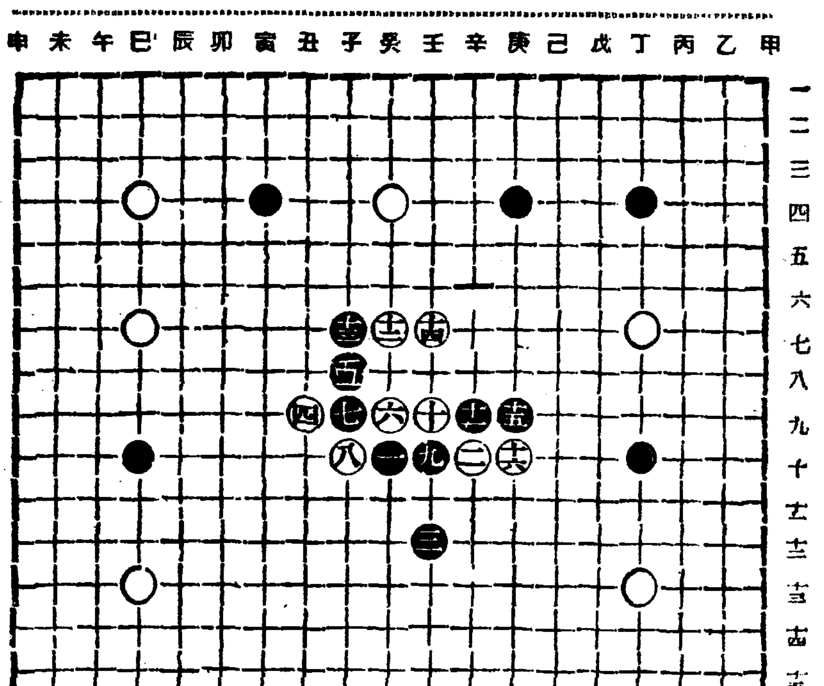
八月一日(木曜)

◇午後〇時五分 맨돌린四重奏 一、여름의새벽…마루키作曲 二、바다의노래…안손作曲 三、바다의私語…살베티作曲 四、船遊…高橋功作曲 五、오랜지나무의그늘…폿슈통作曲 六、배노래…무니에르作曲 七、愉快한거름거리…가스트리作曲 指揮 末岡克馬 (東京맨돌린·앙상블)
◇同 一時 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六時三〇分 童謠獨唱 一、싀골길(全) 二、英語공부(全) 三、산에서온새(全) 四、望鄕의노래(全) 五、별떠기(吳) 六、메밀꽃(全) 七、낡은대장간(全) 八、산으로갈까、바다로갈까(全) 九、汽車(吳) 全明姬 吳馨淑 피아노伴奏 玄雲
◇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夏季休暇中의 注意할事項(一) 金鍾晟
◇八時 醫學講話(二) 世專講師 李世珪
◇八時三〇分 報念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吳翡翠 金素姬
◇九時 모던漫談饗奏曲 一、鐵路의뻗 二、半島人生 三、사랑의市場 林生員 羅品仙 李觸影 伴奏 OK재즈밴드

本社主催 圍碁對局譜【1】

白 閔仲植
互先黑 柳鎭河

●一	甲의十
○二	乙의十
●三	丙의十二
○四	丁의十
●五	戊의八
○六	己의九
●七	庚의九
○八	辛의十
●九	壬의十
○十	癸의九
●十一	子의九
○十二	丑의七
●十三	寅의七
○十四	卯의七
●十五	辰의九
○十六	巳의十



◇蔡極文氏評 白辛의十은 中央黑將을 中斷하야 氣脈을 疏通키못함이니 此亦拙局法方에 古例를 依倣함이요 黑壬의十二子의八은 齊腐格으로 行衛策이다 機關行動에 眞理를 硏究하여보건대 將家用兵에 比較할 陣함이니 此亦白牽制하난 이니치못하리라、

酒草의討論

술이、리로우냐? 담배가 리로우냐?

담베는백해무익 술은 약으로알고먹으면 실상리로운점이 만타

問 술과담배는사람의몸에 어떠한작용을하며 어떠한해를줍니까 자세히하교하야주십시요 (大邱日S生)

答 술이라는것은 적당한분량으로 마시면 유익되나 그러치안흘때는 극해가되는것입니다. 적당한분량을마시면 언어동작이활발하야지고 흥분이 만하지고 맥박이만하지며 얼굴에 생기가 더하야지고 피로의감각을 덜게하며 다른음식의 섭분보다 속히분해되야 힘으로 활동하게되는고로 분해하기 어려운 기름등을 몸에저장케하며 단백질(蛋白質)의소모를절약하야 체중이늘게되고 미각(味覺)과위(胃)를자극하여 식욕을증진하는리익이잇습니다. 이러한 리익이잇다고함은 일상병자치료 흥은 동물실험등으로 확실한 근거가잇습니다 그러나 이와가튼 리익을어드려면 술을로마실것이 아니라 약으로마시는것이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음식물과가티생각하시고마시면 큰해를봅니다 술을 마시는관계로 만성 위장염(慢性胃腸炎)을이르키며 주의와 생각 하는힘이적게되고 여러신경 작용이 마비하야지며 지각(知覺)의 이상이발생되고 심장이커저 약하야지기 쉬웁고 혈관(血管)이 일측굿게되기쉬우며 일반체질이 약하야 저항력(抵抗力)이 적어집니다 이러한관계로 사람의 생리적(生理的)에 큰해를이루며 사회에대한 범죄의구성、경제방면에 실로 말하기 어려운해독을 기치게됩니다 이러한 해가잇는 물건인고로 술을 마시려면 먼저 말슴한바와 가티 약이란 생각을가지고 먹되 소분량에 끄칠것입니다. 의학상으로 술을약으로 사용하는것은 열성병(熱性病)의、초긔(폐염、단독) (급성발진열등) 급성심장쇠약(急性心臟衰弱)、만성병의 회복시긔(恢復時期)등에 사용합니다 그런고로 일반음주가(飮酒家)되신분은 이런점을 잘생각하시여되도록 삼가해서 마시는것이 상책입니다.

담배의 작용은 그주성분인『니코진』이라하는데 이것은하등의이익이 업습니다. 담배는 모든신경 작용을 마비(痲痺)식히며 심장과 혈관을 약하게하고 시력(視力)의 장애를 이르키고 인후(咽喉)와 위(胃)를 자극하야 염증(炎症)을 이르킵니다 또얼골 빗도 창백하야지고 몸도 마릅니다. 이런고로 담배는 조곰이라도 피우면 유해무익이오나 그 성분인『니코진』으로 일정한 의약을 만드러 어떠한 시경병치료에 사용하고 혹은 담배로만든약으로써 옴(疥癬)혹은 기타소양증(搔痒症)에 한하야 피부(皮膚)에 바르는약으로 사용하는일은 잇습니다

이상 말슴한바로써 술과 담배의작용 또는 사람이 그것을마심으로써 어떠한 영향이 밋치는것을 아실것입니다. 이외에 사회에대한 의영향은 실로 만키로 이에 끗칩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수박의 보족

싱싱한것을 고르자면 통통!『타진법』

여름과실로 가장인끼잇기는 참외와 수박일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보기에텁스럽고、빗조곳、수분이만어서 목이컬컬할때 식욕을이르키기는 수박이 제일일것입니다.

◇수박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것은 빗이 빨기곳、껍질이퍼-러곳、모양이동근 대화종(大和種)이요、그보다 고급인것은 감로종(甘露種)인데 일홈과가티 맛이 감로와가태 조흐나 살에 약간섬유질(纖維質)가튼것이잇서서 말하자면 이것이 옥의티라고볼수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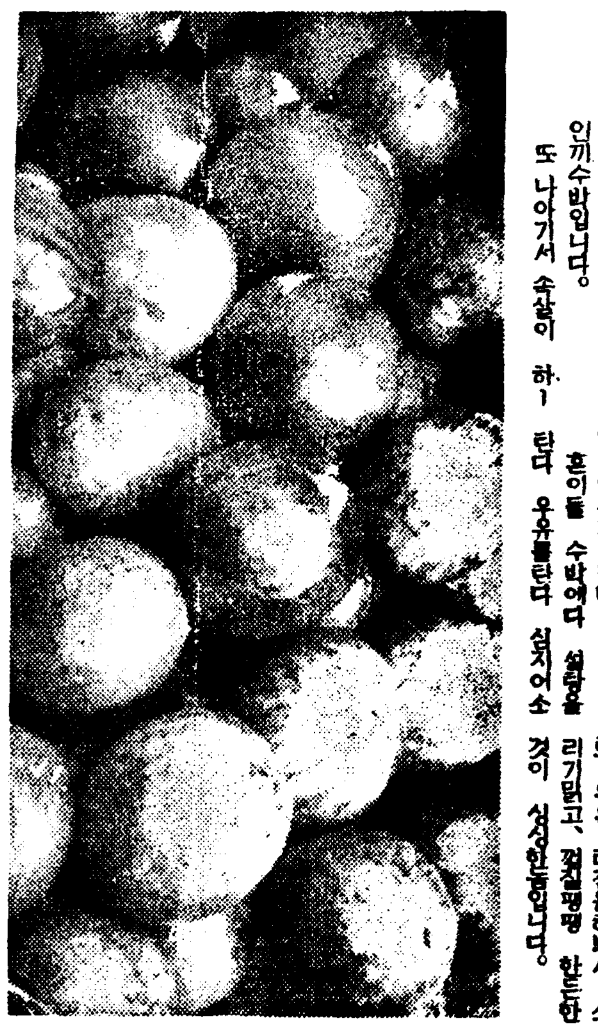
형상은 중형으로 맛동이우묵하고、편평체(扁平體)로생겨속살은홍비입니다. 그다음에는 신대화종(新大和種)인데이것은 대화종과 감로종의 교배로 맛은 그중 갓、감로종의 비젓한 빗갈이요、형상도 커서나은 어머니인 대화종만큼이나 커기는 인끼수박입니다.

또 나아기서 속살이 하-얀것은 모양은 감로종보다 조금 더크고、경쾌한 맛이나는것이잇는데 이것은 은감로종(銀甘露種)이라고합니다.

◇수박은 싱싱한것일수록 조흔것입니다. 수박의 참맛은 이싱싱한것을 차게해서 먹는데에서 비로소 그진끼가 드러나는것입니다. 치ㄴ박에 소금을 의간치어서 아삭아삭소리가 나게먹어야 제 맛이나는것입니다.

흔이들 수박에다 설탕을 타서 먹는이도 잇고 심지어소주를타서 먹기까지하는데 이러한방법으로 먹으면 수박의참맛이 전혀업서지고 맙니다. 더구나수박을섞어가지고 짜서 국물만먹는 사람이잇는데 이런사람은 무슨맛으로 수박을 먹습니까

◇수박은 리수도를 질하는것임으로 신장병(腎臟病)잇는사람이 먹으면 매우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흔수박고르는법은 손끼락으로 툭툭 타진을해봐서 소리가맑고、꿩꿩하는 한것이 싱싱한놈입니다.



家庭메모

손에 무든 비린내 / 시든꼿을살니기

알미늄으로맨든 그릇에 산류(酸類)가 무드면 뿌─연녹이 슬어섯다가 그녹시 떠러지면 구녕이 나기쉽습니다. 그런데 이녹이 끼엇을때에 보통그릇닥는 기와장가루나 모래로비비면 그릇이 쉬상하므로 힘주어 두에바르든 구두약을 마계(헌겁)에 무처가지고 그것으로 문대면 그릇이 상하지도안코 윤이나게 되집니다. 따뜻하게구러서 못쓰게된 헌구두약도조흐니 잇거든 모아두엇다가 시험해보십시요

☆ 생선비린내가 손에몹시 나서 물에씨서도 잘업서지지안을때 또는 생선그것에서 몹시 비린내가날때에는 생을 강판에가라 그물을찌어바르면 그냄새 가업서집니다

가령생선일경우에는 생칠을 생선에발라 굽든지 지지든지 마음대로하십시요 손에서날경우에는 손에생칠을 발랏다가 씨서버리면 냄새가 업서집니다.

☆ 병에꼬진꼿이 시들기시작할때 소생식히는법이잇습니다 병드러죽게된사람에게 강심제(强心劑)를 쓰는것인데 즉 병에『아스피린』(감기드럿슬때먹는약)을 대여섯알녀으면 다시싱싱해집니다.

醫學

경도가불순해

問 저는 당년 십구세의 처녀인대 월경이 고르지 못하고 아래배와 허리가 이상스러우며 분량도 엇던때에는 만코 엇던때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게란힌자위 가튼것이 나오니 무슨병일까요 (市內一讀者)

答 처녀시대에 월경불순은 흔히 잇는것으로 월경통이 잇다가도 결혼후에는 그런증세가 업서지는일이 만습니다. 때때로 게란힌자위 가튼것이 나오는것은 조곰식 나오는것은 보통이것임으로 별로 걱정하실필요가 업습니다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錫煥)

하복부가압허

問 이십세미혼남자인대 다른때에는 아모일이업스나 이러날때에는 반드시 배꼽밋하복부가 압흐고 창자가땡깁니다 무슨병일까요 (天安生)

答 맹장에 고장이나업는지 진찰치 안코서는 확실치못하오니 근처병원에 문의하야 보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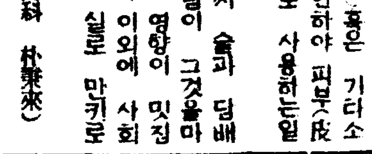
모히중독치료

問 모히중독을치료하려면 어떠한방법으로하여야 아조근치할수잇는지 가정료법을가라처주십시요 (中毒者)

答 가정치료법으로는 근치하기 어렵고 반다시 입원하고 감독하야 치료할수잇습니다

曆

七月卅一日(水) 陰六月初二日 戊申 土 執除
●祭祀에宜함
◆立秋 八日(陰七月初十日)
◆末伏 十二日(陰七月十四日)
◆處暑 廿四日(陰七月廿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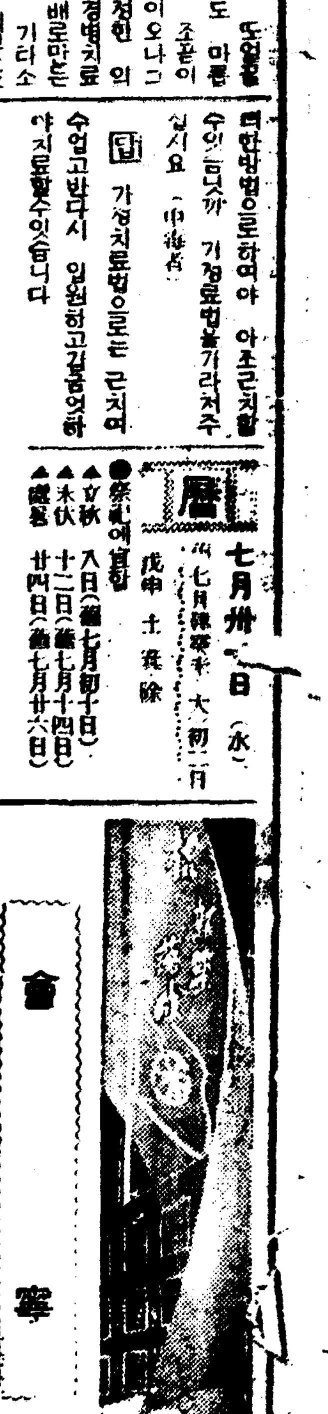
短篇小說 만무방 (13)

金裕貞 作 安碩柱 畵

웅칠이는 논께로 바특이 나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붓첫다. 서뿔리 서둘다간 낫의 휘엉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처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식경쯤 지낫을까、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노코 사면을 두리번 거리드니 그제서 기여나온다. 얼골에는 눈만 내노코 수건인지 뭔지 흔겁이 가리엇다. 봇짐을 등에 질머메고는 허리를 구붓이 빼손을 놋는다. 그러자 웅칠이가 날쌔게 달겨들며 『이자식、남우벼를 훔처 가니 ―』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히 놀란 모양이엇다. 웅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께를 나려조겻다. 어이쿠쿠、쿠ー、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소리에 귀가 뻔쩍 띄이어 그 고개를 들고필부터 벗겨보앗다. 그러나 너머나 어이가업엇음인지 시선을 치거드며 그 자리에 우두망철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엇다. 살똥미즌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드니 『성님까지 이러케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홱 돌린다. 그리고 늣기며 울음이 복바친다. 봇짐도 내버린채 『내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퉁스러히 내뱃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업서진다. 형은 너머 꿈속 가태서 멍허니 섯슬뿐이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손으로 그 봇짐을 들어본다. 가쁜하니 끽 말가웃이나 될는지. 이까진 걸 요러케까지 해갈라는 그심정은 실로 알수업다. 벼를 논에다 도루 털어버렷다. 그리고 안해의 치마이겟지、겉은 보자기를 칙칙 개서 들엇다. 내걸 내가 먹는다 ― 그야 이를말이랴、허나 내걸 내가 훔처야할 그 운명도 알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즈을 버린 아우도 아우이렷다. 에―이 고현놈、할제 보를 적시는것은 눈물이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부비고 머리에번쩍 떠오르는것이 잇스니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깔. 시오리를남쪽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박가술에 밤마다 늘 매여잇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아무러케 따지던 칠십원은 갈데업스리라. 그는 부리나케 아우의 뒤를 밟앗다. 공동묘지까지 거반 왓슬때에야 가까스루 만낫다. 아우의등을 탁치며

『얘、존수잇다、네원대로 도울해줄게 나구 잠간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랫다. 그러나 아우는 입하나 열라지안코 그대루 실쭉하엿다. 뿐만 아니라 어깨우에 올려노흔 형의 손을 뿌질어던진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삐익 다라난다. 이걸보니 하엄청이나고 기기 콱막히엿다 『이놈아!』 하고 악에 밧치어 『명색이 성이라며?』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볼기짝을 후려갈겻다. 아우는 모루 몸을 꺽드니 시납으로 찌그러진다 매미처 압 정갱이를 때렷다 등을 팻다 일지 못할만치 매는 나리엇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업드리어 엉엉울도록 매는 나리엇다. 확김에 히긴햇으되 그꼴을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수 업다 칭칭뒤、배티던지곤 팔짜드신놈이 그저 그리지 별수잇냐. 쓰러진 아우를 일으키어 등에업고 일어섯다. 언제나 철이 날는지 딱한 일이엇다. 속썩는한숨을 후ー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나려온다. (不得已한 事情으로 前回에 數十行略하엿습니다。)

―(三四、九三、二〇)―



會寧

會寧邑 金命夏 電話三二四番

會寧燒窯元 崔晃載 電話一二二番

咸北道會議員 李容碩 會寧邑 電話一六五番

會寧壽町 李始煌

會寧壽町 共信商會 電話二七七番

會寧大正通 廣信美術木工舍

會寧大正通 林秉圭

會寧銀座通 李珍徹

會寧昭和通 京美社

行營市 金衛敵

行營市 金知龍

行營面職員一同

行營市 李寅龍

會寧郡碧城面長 吳基業

英陽

英陽二火會
朴濟侯 津田碩 福井格 池田仁作 邊圭燮 鄭鳳鉉 李秉祚 大山泰 出口茂志 中澤八十雄 谷川仙十郞 豐田官一 宮崎孫次郞 村上茂彌 猪俣勝太郞 北村衛

日月面道谷洞 李圭學

石保公立普通學校 中島正男

石保面事務所 朴廷秀

日月面注谷洞 權相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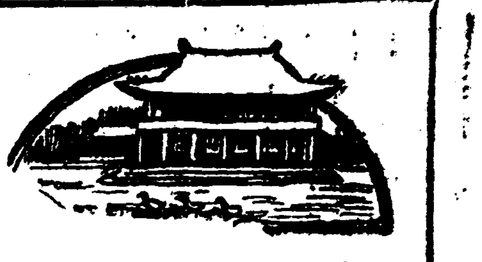
英陽邑 權永職

石保面院里 李秉書

石保面院里 李鉉柱

朝鮮日報社 英陽支局員一同

古建物巡禮 (14)



世道洪國榮의 舊舍廊

湖岩

얼마前까지 日本人所有

가되엿섯고 오늘날 와서는 篆家金敎獻의 집이되엿는 勳農洞 舊經板閣은 본대正祖때 世道洪國榮의 舍廊이엿섯다 世道의起原은 洪國榮으로부터 비롯하게 된바 그威勢가 한창 프른것을 때는 王者를 凌駕할만큼 놉라왓음으로 이집門前은 밤낫車馬가 들니날낙하야 名公巨卿이 모다下風에 趨拜하엿섯스나 한번 世道가 꺽기게되매 邸宅까지도 직히지 못하고 팔게된 模樣이며

그後正祖가 校書館이란

것을맨드럿는데 今日까지殘存한 經板閣은 그의一部이다 그럼으로 이집의年齡은 正祖初 洪國榮의 世道할때로 잡는다면 적어도 一百六十年以上은 되엇슬것이니 私家치고서는 오래지아니한것이아니다 그러면 이집의元主人이요 世道의 開剏인 洪國榮은 어떠한 人物인가 누구나 다아는바와가티 正祖가 일즉東宮으로게실때 그가東宮의 僚佐長이되어 만흔危險을 무릅쓰고 몃번이나 正祖를危境에서 救出하엿슴으로 正祖께서도

그의恩德을 感謝히생각

하사『宥爾三死』너의 세번 죽을것을 容恕하겟노라고 하섯스며 그리하야 國榮에게 一切政權을 委託하시니 이것을 俗稱 世道라고한다 世道가 되기만하면 아무리 그位가 낫드라도 領相以下諸大臣이 政權를 들어 번저世道에게 살게되며 넘겨께서도 世道를 거처서 政事를 듯게 되섯다 一七七六年에 正祖가 即位하시면서 國榮다려 일으시기를『네가世道가 되지안코면 내가 남검이 되지 안흘터이다』하고

구든決心을 보이어섯다

國榮을信任하야 宿衛所를 創設하고 그를들어 宿衛大將을 삼으니 宿衛大將은 말도 할것업시 天威에 咫尺하야 大闕을 守護하는 重大한 任務를 가진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그는 都承旨가 되어 王命의 모든 機密을 掌握하게 되엇고 그他 奎章閣直提學과 禮曹參判까지 兼任하야 무릇世道에 便利할만한모든文武의 要職을 거의獨占하다십히하엿다 이로부터 四年동안은 國榮의 뜻대로 政治를 料理하엿섯고 그威勢도 대단하엿섯는데 事實이지는 모르나 傳하는말에 依하면 擧動이게실때도

國榮이方陣을 치고남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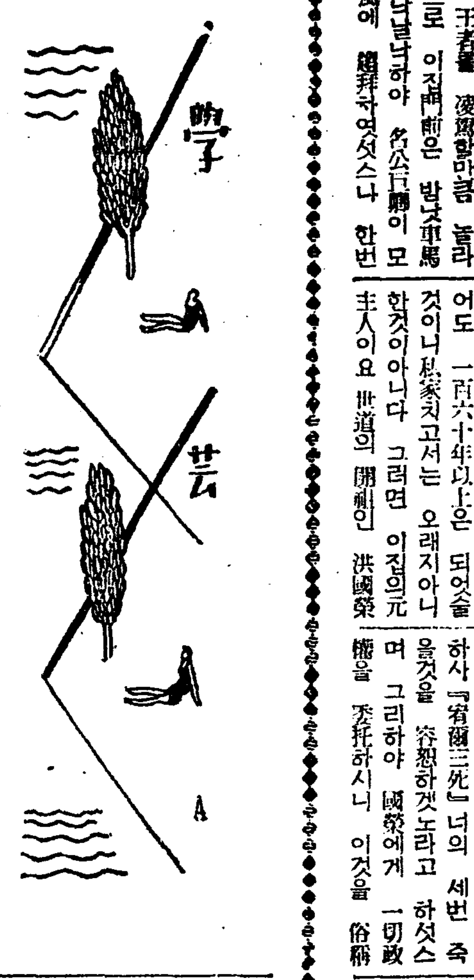
과 가튼 威勢를 보이엿다하며 언제인가 虛誇가 잇슬때 넘검의 배보담도 國榮의 배로 모인 사람이 더만헛섯다한다 이것이 어느程度까지 眞正한 事實이라면 그威勢의 어떠함을 짐작하러니와 威勢를 어드면 慣瀆하게되기쉬운은 사람의常情인바 國榮도 이通弊를 버서나지 못하엿섯다 그리하야 한번은 우에서 國榮에 賜饌을 하섯는데 國榮이 할루로 말하되「主人의 床은 이보담 낫겟지」하니 대저 主人이란 넘검을 指稱한것으로 비록 無心코 한말이나 이얼마나 無嚴한 言行이냐 그는 그의 누이동생(妹嫺)을

宮中에드러 元嬪을封하

아 그로해 元子의誕生이 잇기를 바라다가 마침내 承歡하지 못함에 미처서는 어느다른君으로써 元嬪의養子를삼고 正祖元妃인 孝懿王后金氏를 謀害하려고 하엿다 그러나 이陰謀가 發覺되매 畢竟 이로해서 그가 몰리여 正祖四年에 鄕里로 放逐한바되엿다 最後 江陵에서 客死하엿지만 그가

鄕里로放逐 될그때에도

오히려 殿下를 떠나기愛情해서『…一出都門에 終南이 永隔하니 臣之…』고하엿스며 그아래殿下하야 하엿스되「臣이 殿下를 爲해서 무엇이든지 다하겟습니다 다만 아들노릇만 못하겟습니다」라고 하엿다 이것이 世道洪國榮의 末路에 끼친 眞言으로 어대까지 넘검을 낫지 못하는 안타까운 衷情이 깁히 매처잇슴을 보겟다



七月創作評

두作品에 보이는 作者의社會的意欲

③ 李源朝

『番犬脫走記』 (藝術) 嚴興燮氏 作

이作品은 개를 主人公으로삼은 擬人體의 形式으로서 世態人心에對한 개의 正義感을 披瀝하는同時에 有閑階級의 頹廢相을 그린것이 이作品이다 勿論 이러한

形式 은우리가 다아는 바와가치 夏目漱石의 그 有名한『我輩は猫である』를 例로 들것도업시 이作品의 着想은 그다지 奇拔할것도업고 또한 별로 深刻한데도 업스나 趙碧岩氏의 作品이 散文으로서자리가 잡히지안흔데 比해서이 作者는 叙述하는 文章이小說로서 자리가 잡혀젓다 그리고 文章과 事件의 調和도 잘되여서 이作品의 上半分은넷 比較的 徐緩한 文調로네려오면서도 그다지 讀者의

厭症 을 내지안케하다가 끗헤와서는 개의눈압헤 죽엄이닥첫슬때의 文調는 急激해저서 개의心理와叙述이 함께 緊迫感이 잇게하는것은 作家로서 一境에 이르럿다고 할수잇다 그러나 이 作品이 萬若 개를통해서본 世態와 人情을 그리면서 有閑階級의 頹廢相과 醜悚한것을 엄마간이라도 暴露하겟다는것을 目標로 한것이라면 유영감의집이 헐니우고 쪽겨낫다는것은 이作品속에서 매우 重要한 契機의 하나인것이다 그러하면 유영감의집이 헐닌것을개가

偶然 히갓다가 보게되는것이라든지 또는 그집을헐게된 理由가 박서방의 奸策으로 된것이라면 개가 여러사람들이 일을하면서 주고밧는 말에서 한개의 風說로서 이事實을 알게되엿다는것도 그다지 無理한것이 업스나 실상은 性的不具者인 최주사의 妾이 特殊한意味에서 개를조하하는때문에 유영감의 개를 三圓이나 주고샀다가 그개가 집에는 묵러잇지안코 유영감의 집에만 가게됨으로 유영감의 집을헐게한것이라면 이事實은 決코 한개의

風說 로서 개의귀에드러올것이아니고 개가곳 直接當事者인만큼 개의自叙體로된 이作品에서는 개와 최주사妾과의 關係가 더具體的으로 暴露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이事實도 具體的으로 暴露되지안코 또한 박서방의 奸策이라는것도 其然未然한 風說에 굿친程度이엿슴으로 作品은 中心이 흐려진 感이 업지안타 勿論 이作品의 全體로 보아서는 이場面이 作家에게 잇서서 가장 難關에 屬할것은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이 難關인만큼 作者는 執拗한態度로서이러한

事實 을캐내이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그럼으로 이作品은 맛침내 平汎한 描想이되고말어서 深刻味가업서진것이 아닐까한다

『산골』 (朝鮮文壇) 金裕貞氏 作

이作品은 嚴興燮氏의『番犬脫走記』와는 다른 傾向엣 것이다。 말하자면『番犬脫走記』는 그것이 成功을하엿슨 失敗를하엿든 어데인지 意欲的인데가잇는데 比해서 이作品은 처음부터 作者가 作品을通해서 作者의 社會的關心의 一端을 보혀주다는지 또는 社會的現實面을

提示 하려는그러한 意欲的인데가업시 그저 붓가는대로 고흔말이나쓰고 보드라운 叙述이나하려는 作者의 微妙한情緒만이 보일따름이다。그럼으로 어느評家는 이作品을 春香傳의 現代化라고까지 한듯하나 事實 이作品에는 도련님이라는 말이 나온다고해서 가아니라、아모런 現實的──아니 現代的追眞感이 업다。 대체로 作者는 엇더한興味로서 이런 作品을 썻는지 모르겟스나 現代의 우리가 要望하는 作家는 이러한 少技로滿足하는

作家 는 아닐것이다。 나는 먼저ㅅ달 創作評에서 이作家가 比較的 有望하니로 알엇섯는데 이번에 이作品을 읽고서 늣긴바는 이作家가 새로운 語彙만 만히쓰려고 애쓴때문에 엇든데에는 語感과 事實이 符合되지안는데도 잇스나 假令 이것이、符合되여서 完璧에이르럿다고한들 그것이 무어 作家의榮譽야 될것이 잇느냐? 보담도 이作家는 훨신 더 눈을크게뜨고 넓니 洞察해야 할것이다。그래서 現實에對한 作家로서의 豊富한 生活을 가저야할것이다。그리고이

生活 을항상 銳敏한作家的批判에 統制되어야 할것이다。文章이 流暢하다든지 語彙가 豊富하다는것은 作家的素質인 것이고 곳 作家의 價値條件은 되지안는 것이다。

異國情趣

……저녁바람지나간뒤에……

條件反射論小考

(5) 鄭槿陽

白鼠에게 電鈴을울리면 食餌가잇는곳으로 뛰여가도록訓練하야 이가튼條件反射를成立식힌다 初代의白鼠는 이條件反射를만드는데 三百回의練習이必要하엿다 다음代에는가튼

結果 를엇기에百回를, 三代에는三十回、四代에는十回、五代에는五回의練習이잇스면充分하엿다한다。이리하야 代를싸흐면 어느代에 이르러서는 電鈴의소리를듯기만하면、食餌잇는곳으로 다름질 하리라고 豫言하고、本能이 遺傳한다고하엿다。그러나 이推測은그후 實驗에依하야 그릇된이엿슴을알엇스나 이方面에 對한 엇던暗示를 준것만은事實이다。

條件反射學은 大腦機能의 生理的研究이나 이에因하야 大腦病理學이開拓되고 또精神病學에도 큰寄與를주엇다。例를들면『마조히스무스』『사디스무스』와가튼 變態性慾은 다음과가티 생각할수가잇슬것이다。犬에게

防禦 反射를 이르키게 하는刺戟,例컨대 皮膚를電流로刺戟하야 痛覺을주며 同時에食物을준다。처음에는 甚한 防禦反射、避하려는運動、咆哮等을이르키나 條件反射가成立되면 一切의 防禦作用이 消失할뿐 아니라이刺戟에 依하야 唾液을흘리며그刺戟하는 方向을 向하야 運動하며 도리혀 이刺戟에 對하야 快感을늣긴다고생각되는 諸反應이 생긴다 이것은 食餌反應을 根柢로하는『마조히스무스』이나 食餌反應代身에 性慾에 對한여러가지의 無條件反射를 根柢로하야 成立식히면 참되『마조히스무스』라고 생각할수잇다 防禦反射는 一般으로두方向으로

發露 되는것이니 逃避反射로 發現되면『마조히스무스』가되고 一便攻擊反射로發現될時에는『사디스무스』가 되다고할수잇다。

이가티 條件反射學은 大腦機能의 客觀的研究이엿스나 그影響은各方面에밋치게되여 여러가지 暗示를주게되엿다。

三、結語

反射學의 對象은 生物體와 外界와의 相關關係의 正確한 檢査이다。條件反射學은 意識生活을 純客觀的으로 硏究하려는한 企圖임에不過하다。『파블로프』自身도 다음과가티말하엿다。

探報臺

標準語査定에對하야

朝鮮語의 統一을하기위해서 多年間 努力해오든 朝鮮語學會에서는 그一段落으로서 標準語를 査定하기위하야 지난 正月에 溫陽溫泉에서 斯界에 關心하는 人士들을모아 第一讀會의 査定을마치고 오는 八月四日부터 다시 牛耳洞에서 第二讀會의 最後査定을하기위해서 各方面의 人士들을 招請하엿다 하니 이事業이 끈힘업시 發展하고 또한 完成의 날이갓가워오는것은 우리네가 다가티 깃버할일인것이다。

그러나 標準語란 항상 地方語와 對峙되는意味에서 일러지는말임으로 先進國家의 例를보드래도 標準語査定이란 항상크나큰 難關을 거치서 오늘날에 이른것이며 또한 오늘날에잇서서도 어느나라이든지 標準語以外의 地方語가 現實的으로 存在하고 잇는것이다。이것은 言語學의 理論上으로 보아서 純粹한 標準語란 存在할수업다는 것임으로 實際上으로는 一種言語가 存在하는것이니 여긔서 原理上의 問題를 論議할것은 업스나 새로이 標準語가 査定되는 오늘날에잇서서 우리가 要望하고싶흔 몃가지를 말한다면 標準語란 본래부터 地理的 時代的 階級的으로 一種의中和된 言語인것이다。그래서 地方語와가티 生新한、語感을가지기 어려운것이며 또한매우 限定的인것이 되기쉬운것이다。그럼으로될수잇는대로 地方語에 對한 寬大한雅量이 잇서서 標準語와 地方語라는것을 무슨 敵對的인것으로·생각지말고 一種의代表的 地方語로 생각해서 우리의 言語가 더 만히 生新하고 더 널리 自由스러운것이 되게하기를 바라는것이다。다시말하면 넘우 京畿中心이오 넘우 中產階級以上에 치우치는것보담은 地方語와 平民語(?)에對해 더 만히 더 널리査定의 標準을 擴大식히기를 바라는것이다。 (如水)

夏期 歸鄕文藝 投稿歡迎

規定

1、隨筆、日記、紀行、實話
2、專門學校學生程度以上
3、四百字原稿紙十枚以內
4、寫眞添付도無妨

(原稿採否는本社自由)

朝鮮日報社學藝部

『쎄리』와 배

……龍塘浦의追憶……

崔載瑞

數年前에 나는 海州龍塘浦에서 한해여름을 지내엿다。港口를내려다보는 뒷山中腹에 이러뜨려세운 旅館한房에서 每日가치 들고나는 배를 바라다보며

卒 業論文을 쓰고잇섯다 題目은『쎄리』이엿다。이때에 나는 배와 쎄리 사히에內面的으로나 外面的으나퍽因緣이깁흔것을깨달엇다。

쎄리의一生은 그의불(火)갓고 或은살(矢)가튼靈魂이 肉體에幽閉된 現實世界를버서나 永遠의世界로飛揚하라는 몸부림의 一生이엿다 그리고 그의詩는 永遠界로 떠나가라는 그의靈魂이 날개치는 소리이며 或은 그絕叫이며 或은悲嘆이며 或은嗚呼이엿다。이래서 쎄리는 푸른바다에 힌돗을달고 살가티닷는 배가운데에 무엇보다도 多情한 심볼(象徵)을 發見하얏슬것이다 위선힌돗은 무엇보다도 그의

靈 魂의 純潔과自由를象徵하얏슬것이오 快走하는배는 疾風가티 닷는그의 情熱을 象徵하얏슬것이고 더욱히 배가向하고 잇는水平線의 저쪽은 그에게 永遠한世界를 象徵하얏슬것이다。엇지보면 瑠璃窓에 부튼 흰나븨갓기도하고 或은 바다우에 떠노는갈매기와도 가티보히는 點點히흐터진 힌돗들을 보면서 나는 쎄리의 一生을 追想하고잇섯다。

배노릇은 그의 一生을 通하야쎄리의 가장 질거운 娛樂이엿다。 어렷슬때엔 조희로 배를접어 물에띄우는 작란을 즐겨 하얏다。그것이 또才操잇는 솜씨이여서 쎄리의배는 이적은 뽀-트·레-스에서 늘優勝을하얏다한다。그가

父 으로서 危險하다는理由로 法廷에서 사랑하는아들을 빼앗긴 다음 憔悴한 心身을 마-로-의 田園에 依託하얏슬때에도 그는湖靑와 뽀-트로 唯一한 樂을삼엇섯다。

뽀-트를타고 江울을타가 林間을 散策할때에 아직도 古代風이남어잇는 이閑雅한 田園都市는 쎄리로하여금 이곳을 一生의 故鄕으로 삼엇스면 하고 생각케 하얏슬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地上에 故鄕이업는 放浪兒엿다。어느날 배를라려고 쎄리가江으로 나가보닛까 그의뽀-트의 이름이『Va-ga』엿헤다 누구의작란인지『Bo-nd』의四字를 添付하얏섯다。Vagabond는『放浪兒』라 이작란을 한사람은 아마 쎄리의

運 命을 잘 豫言하얏다 고할것이다。

夏季休學도거지반 다 간八月의어느날 龍塘浦는 모진바람에 자못 물결이 高하엿다。다더노흔 瑠璃窓으로내다보는 바다엔 자옥한안개와 쉬일새업시 부서지는 물거품에 한쌍의배도 자최를보히지안코잇섯다。가지고온 따우덴敎授의『쎄리傳』도거지반읽어서 晩年의生活로드러갓섯다 쎄리가 죽든날아츰 愛用의뽀-트『에아리알』號를 라고 伊太利港口 레그호온을出帆하든날도 이가치 風雨가사나웟든날이엿다。그는 카사、마그니의山莊으로부터 遠來의親友를마즈러

約 一週日前에 배를 라고이곳으로 왓든것이다。그러나 쎄리는 山莊에서 호올로病에 呻吟하는 愛妻를 생각하고 별안간 떠나기로하엿다。親舊들은 그를 말렷다。바다엔 한참의漁船도 보히지안는 風勢이엿기때문이다。그러나 남의말을듯는 쎄리는안이엿다。풍켓트엔 쏘포크레스의 悲劇集을넛코 親舊윌양스와함께 레그호온을 떠난것이 거지반午正이엿다。그를떠나보내는 사람들은 자옥한 안개속에『에아리알』號가 사라지도록 海岸에서 바래엿다。그러나 이것이

最 後의 作別이 되얏든 그들도 몰낫섯다。그들의屍體가 스메지어 湖上에서發見된것은 一週日後엿다。

쎄리의生涯는 곳곳내 浪漫的이엿다。永遠界로 떠나는물을 배에다 依託하얏다는것은 그에겐 무엇보다도 多情한일이엿슬것이다。나는 쎄리를 생각할때마다 龍塘浦에서 지낸 一개月餘의 漫뭇(?)生活을 追憶한다。 끗

新刊紹介

▲女論 七月號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三三 女論社發行 振替京城八二一二番 定價十錢

▲獨學通信 第四十一號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發行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五錢

▲序中 第二號 京城府竹添町三丁目四番地 序中會發行 非賣品

▲農村之光 第二十七號 京畿道地方課內 京畿道發行 定價二錢

黑風 (89)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초 연 13

『자살이다! 구원해야 되겟다』하고 뛰어가는 왕한은 폭포밋헤 이르러서 떠러진 사람을 차저보앗스나 산뗌이 가치 나러질내서 쫑쫑에 물니는소리에 가리 속그치는그가온대서는 사람의 그림자도 볼수가업섯다 왕한은 한참동안 우두커니 섯다가 할수업시 도러섯다 왕한의 뒤를빨리 따라오든 골난은 떠러진사람의 엇지되것보다 왕한의 안부를 먼저 무릿다 그러고 자기가 떠아닌때에 왕한을 권하야 나오자고 하야서 그러한 조치못한 광경을 본것을 후회하얏다 그들의 흥취는 깨어저서 무료(無聊)히 도라갓다

그날 조간신문에는 아래와가튼 긔사가 낫다

『오날·오전 사시경에 나이야가라 폭포에 떠러저서 자살한 사람이 잇는대 그는 불난서 파리에 사는 월리암이라는 당년 이십칠세의 청년인대 그 류서의 전문은 아래와갓다

『나는 죽고 십허서 죽는다 세상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만치마는 그들은 죽고십허서 죽는것이 아니라 살수 업서서 또는 사는것이 죽는것만 못하야서 부득이 죽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아니하면 아니될 리유 는털끗만치도 업다나는 돈이잇고 지위가 잇고 건강하고 학식이잇고 죄가업고 살아 나가는데 조금도 불만(不滿)이 업다 단순히 죽고십허서 죽는다 천하만고에 죽기를 조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업다 죽기를 조아하는 사람이 업다는것 보다 이세상의 모든것은 살기를 위하야 건설되엿이다 강도가 그러하고 살인이 그러하고 미련한자도 그러하고 지혜잇는자도 그러하고 영웅호걸도 그러하고 가인재자도 그러하고 성현군자도 그러하다 사회도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하고 전쟁도 그러하고 평화도 그러하다 지옥도 그러하고 천당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은 살기위하야 구차히 살다가 할수업서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살기위하야 활발히 살다가 자유로 죽는다 나보다 먼저난든 사람들은 모든짓을 다하얏다 악한일도하고 착한일도하고 미련한일도하고 지혜잇는일도 하얏다 말도 못할일이업시 다하고 글도 못지은것이 업시 다짓고 발명도 못할것이업시 다하얏다 다만 하지못한것은 죽고십허서 죽는일 한가지 뿐이다 사람은 남이 하지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지못하고 살다가 마는것은 지극히 못생긴일이다 나는 인류생긴이후로 모든사람이 하지못한일을 창작(創作)한다 그리하야 나는 죽고십허서 자유로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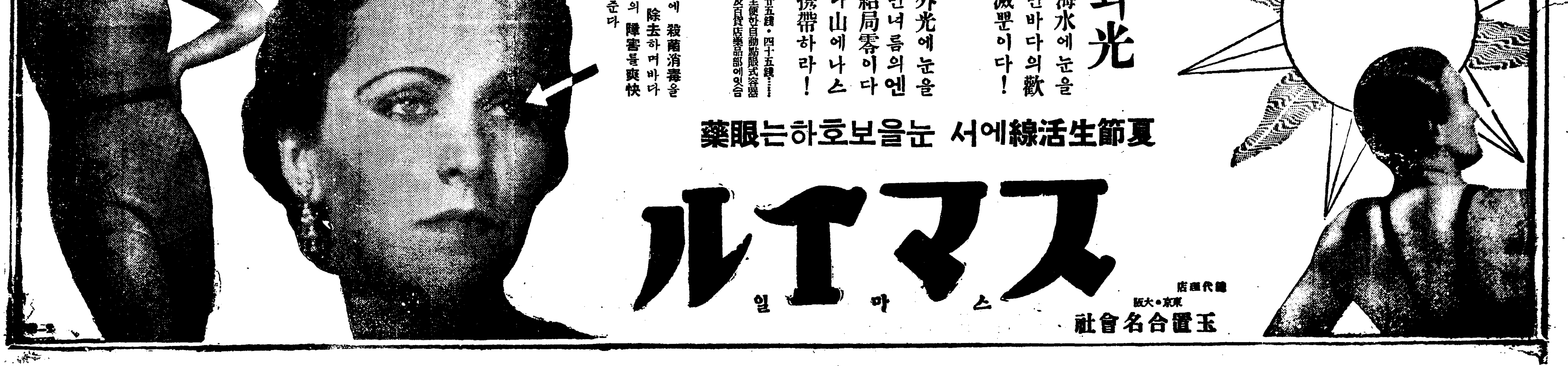
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나매 모든사람들은 그것을보고 여러가지로 비평을한다 잘햇다는사람 못햇다는 사람 초월한일이라고 하는사람 미친짓이라고하는사람 제멋대로 지꺼렷다

『선생님은 어떠케생각하서요』하는 골난의말에 왕한은 이려케 대답하얏다

『그사람도 일종(一種)의 생(生)의 열패자(劣敗者)로 고등자살자(高等自殺者) 입니다 죽고 십허서 죽는다는 것은 살기시려서 죽는다는 의미와 마천가지입니다 살수업서서 자살하는 사람과 다를것이 업습니다 그것은 물질문명(物質文明)의해독입니다 그사람은 고등지식을 가지고 물질문명의 과도한 자극을 밧어서 세상을 허무(虛無)하게비관(悲觀)한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염세(厭世)자살입니다。 사람은 밧갈고 나무하고 글읽고 장사하는등 떳떳한일을하고 사는것이 원칙입니다 하필 이상한일만 하는것이 조흔것이 아니겟지오 무론、생명을 열동강을 내더라도 할일이 잇고 안할이 잇스나 그것은 이세상의 정당한일을 위하야 서 하는것이오 부질업시 이상한일을 하기위하야 한갓 죽기를 위하야 생명을끈는것은 잘난듯 하면서도 못생긴일입니다。』

골난은 왕한의말을 찬성하얏다

나이야가라가튼 명구에도 세월은 가는것이엿다 며칠후에 시카고의 정거장에는 얼굴이 조금 걸고서도 건강하야보이는 왕한과 골난의 모양이 나라낫다



江陵教會의紛糾 形式만은一段落

今後歸趨가頗注目處

【江陵】 기독교조선감리회 강릉읍교회의 교도간의 분쟁사건은 십수년을두고 계속하야 그귀취에 대하야는 당사자들인 교도(敎徒)들은 물론 세인들도 다대한관심을 갖고잇든바 지난칠일밤에야 마츰내 문제는 탐착되엿다함은 당시 상세히 보도하얏거니와 남은문제는 분렬하야 나아간 새교회를 감리교회의 그리판으로서 인정하겟는냐하는것이엿다 이문제에대하야 수구파에서는 어데까지든지 분렬파에대하야 회개하고 재차드러오라는 말하자면 굴복을 종용하는경향이 농후하다는데 분렬파에서는 어대 까지든지 분렬상태로 죽 분가를하야 일가를 성립하는데 감리교회의 그리반에속하기를 갈망하되 만일교회최고 그리판에서 이것을 승인치 안는때에는 타교회파로 이속되어서라도 그들과 합치하기를 고사하고잇섯다 한다 그리하야 본문제는드되어 교회 최고그리판인 총리국 으로 옴겨 오죽 총리사의 재단 여하에 일임하고마러섯다

그런중 지난이십일 총리국에서는 총리사의 중대사명을 마터가지고 구성서(具聖書)란사가강릉에 도착하야 그익일인 이십일일(일요일)에 량파교도를 본교회에 소집하여가지고 례배를 폐회한후조정회(調停會)를 개최하야 구성서목사의 사면과 질문을 말한후 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의결하게 되엿는데 처음에는 비공식으로 수구파측에서 탈퇴파교도들에게 모든일의 잘못을청충히 사과 자복하는터인복합치하는것이 엇더냐는것을 관할목사로부터 통고한바가 잇섯스나 그의견은 용납못되고 드되어분열에대한 가부를 법적으로 결정하기로 되엇다 그래서 이문제가 중요한것인만큼 긔명식투표로 결정을 짓기로하얏든것인데 개표한결과 분열하는것이가하다는표가 삼십오표 부다는것이삼십표겨우오표의 차이로 분열을 시인하게가되자 수구파인 청년의 다대수는 퇴장하고마럿다이리하야 오래동안 분쟁의끄리를 물고돌던 이문제의 최후로감리교회는 두개소가 공연하게 생기게되여지난이십이일 탈퇴신자들이천여원의 경비를 드려만드러둔 대화정(大和町)교회에서 오전열한시에 분열파로서는 빗난제일페이지의 역사를짓는 첫번당회를 관할목사한고 모(趙琳模)씨와 총리사대리 구성서(具聖書)씨 그리고본교회에서 사오명의 방청자 또교도백여명의 집회로 개회하야 교회성립으로서 필요한 임원(任員)과기타 일체를 결정하고 폐회하야 일로서 혜여저 문제는 고종하게 되엿다 하지만 량파교도들 심중에 각기 깁히 뿌리가 백히고잇는 그무엇이 어떠한 형태를 뒤집어쓰고 다시 나타나서 예긔하지안는 상태를 형성하지나 안홀가 하는것이 퍼차의거정되는바라고 한다

學級增設爲하야 四千餘圓을喜捨

淸州林、金兩氏美擧

【淸州】 청주군 남이보통학교(南二普通學校)는 학년 삼학급제로 아동수용상 대유감이든바금번에 그학급증설이 대두하자동면문동리(文東里)림헌창(林憲昌)씨와 외천리(外川里) 김태식(金泰植)씨가 이천여원식 사재를 희사하야 청주교육게에 큰 충동을 주는동시에 동면내에서 한씨의 칭송이 자자하다한다 림(林)씨는 이외에도 동리 야학을 위하야 대지 이백평과현금수백원을희사하엿다한다

傳票僞造行使로 數千餘圓을詐欺

一團七名畢竟被逮

【咸興】 공장지대에 특유한 범죄=방금대두공장(大豆工場)신흥(新興)의 본궁에서 위조전표(僞造傳票)를 행사하여 만은 로동자들과 청부업자에게서 수천원을 사취하야 먹은 일당칠명이 이십사일 본궁주재소원에게 검거 되엇는데 그들은 이달초순경 본궁에 와서 서송조배하(西松組配下)궁기조(宮崎組)의 전표를 위조하여 자긔들의 처등의 녀자들은 로동자로 가장시킨후에 궁긔조(宮崎組)기타 일반상민 그리고 로동자들에게 행사하여 먹은것이라는데 그피해액은 수천원에달한다고한다

群山郵便局 移轉新築期成

【群山】 군산에잇서서 실로적년의현안으로되여잇는 군산우편국 중앙이전개측은 동연소화십일년도에는실현이되리라한다 측측은한바에의하면 총독부 체신국에서는 소화십일년도 예산편성에 당하야 경리과(經理課)에 대하야 신규사업비(新規事業費)로십팔만원을 요구하얏다하며 장소는 현경찰서엽공지가 최적당처로인정된다고한다

晝間停電問題에 工場側態度强硬

近近損害賠償請求?

【定州】 신의주전긔주식회사에서는 지난십팔일부터 송전선회장으로 인하여 주간송전(晝間送電)을 정지하여 정주읍에 공장측과 회사측간에 분규가 일어낫다는것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물의의 정전으로 말미아마물소한 손해를밧은 정주시내의 십여공장측에서는 회사측의 무리한처사에 격분한 남어지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발하는동시에 정전으로인한 경제적손해를 청구하리라는데 정주군 청정(淸亭) 고읍(古邑)등지의 당업자들도밧는손해가 다대하여 불원간에 정주시내의 공장측과 동일한보조를 취할태도를가지고잇스니만큼 사건의 추이는 자못주목된다고한다

在哈朝鮮人民會 民選議員選擧

【哈爾賓】 합이빈조선인거류민회(哈爾賓朝鮮人居留民會)의평의원선거규측개정에의한 민선(民選)평의원선거는 오래동안 일반의이목을끌어오든중 지난이십사일오후한시부터 동민회사무소에서 정원륙명에대한 유권자일백이십명중 사십명의기권으로 투표하야 동사시에 개표한결과를보면 총투표수 칠십칠점으로 각후보자는 전부당선결정되엿다는데 금번에당선된 의원은다음과갓다한다

◇官選議員—會長金汝伯 副會長金斗鎭 評議員朴燦夏 同朴南圭 同嚴世官 同張京稷 同崔鐵聲 同金亨淑

◇民選議員—評議員李圭殷 同鄭京允 金國憲 金潤鎬 李大勳 朴英才

二圓强盜犯送局

【伊川】 병든몸 꿈주린장자를 채우기위하야 한때의 그릇된맘으로부터 운 강도질을하고 지난이십칠일 입건서류와함께 이천경찰서류치장을 떠나 철원검사국으로넘어간 청년이잇다——지난십일일새벽네시경에 이천군웅탄면건자리(伊川郡熊灘面乾子里)정연팔(鄭然八)(二七)의집에 엇더한악한이드러와서 곤이잡드른 주인을개여노코 칼을 내어보이면서 돈을내시안으면 죽이겟다고 위협함으로자손든주인은 집에잇든 현금이원이전을 내다줌으로 범인은즉시 갓다고한다 중회을 감추위비린것을 즉시이천서 왕마주재소에서 탐지하고 범인을 추궤하든바 원산까지가서 행적이 잇슴으로 원산경찰에 제포하엿는데 범인은 이천군 방장면구당리(方丈面九唐里)라는 이십이세의 청년으로 연주창(連珠瘡)으로 신음하든끄테 병든몸에 굴주린장자를 채우기위하야 그와가티 범죄를 한것이라한다

平北個人庭球

本社支局後援

【車輦館】 차련관체육회 에서는 본사 차련관 지국 후원하에오는팔월십일일오전두시부터 차련관유치원(幼稚園)코ー트에서 제륙회평북개인정구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우승에는 우승긔(優勝旗)외에 부상으로려비일원 젼승팀에는 상품을지급한다하며 규정은다음과갓다

一、時日 八月十一日午前十二時
一、場所 車輦館幼稚園코ー트
一、申請期日 八月十一日까지
一、申請場所 車輦館體育會
一、申請金 每組一圓
一、抽籤方法 本會에서抽籤決定함

無極公普校의 學級增加期成

【陰城】 음성군금왕면무극공보교는 구역이광대하여 면내이십에 개동리와 생극면일부의 아동이 통학하는두역이나 학급이 적어서 입학지원자 이백오십명에백명만 수용하므로 일반식자간에 문제화하든중 지난 이십삼일에 동면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면공직자 간담회석상에서 동교후원회장 장인준씨의 제의로 학급증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즉석에서 학급증가긔성회를 조직하엿는데 피선된 역원은다음과 갓다고한다

會長 李玆成 副會長 張觀準 同委員 李碩柱

그女子의一生 (171)

春園 作 夕影 畫

방랑편

금봉에게 온 새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광진의 부인이 잉태하엿다는것이다。십오륙년전에아이 하나를 나아서 젓낫헤에서 일어버리고는 영 잉태해보지못하던 「아씨께서」 태긔가 잇다는것은 김광진의 집에는 여간 경사가 아니엇다。광진이가 서울 다녀온 후로는 도모지 본처와 동침하지아니한다고 해서 두 집——광진의 집과 그 처갓집의 큰 걱정거리가 되던것이 인제 광진의 부인이 잉태한것이 확실한것은 두집에 큰 경사일것이아닌가。

「아씨께서도 나이가 사십에 웬일까 하고 여태껏 감초고 계셧다구요。 그래도 영 입맛이 업스시구 뭄이 수척하시구 하니깐은 정경부인마님께서 노려정을 하서서 악아 웬일이냐 어듸가 아프냐、하시고 애를 쓰셧답니다。 정경부인마님께서 어떼케 그 아씨를 귀애하신다구용。 또 영국서방님께서 도모지 가까히 하시지를 아니 하시니깐은 그것이 가엽스셔서도 노룰 상하다고 그리셧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오라、아가 병원에를 가보렴으나 그러시면 꼭혜무슨 밥산가 한 의사양반이 와보시더니 애기라구요、벌서 다섯달이나 되엇다구요。그러니 정경부인마님께서 얼마나 깃브시겟서요。대감마님께서도 이거 경사라구、인삼을 듸려라、녹용을 듸려라하시고 야단이신데요」

하고 가회동집 수다스러운 어멈이 금봉이 집에 와서 침모를보고 못지안는말을 한바탕을 어노코 갓것이엇다。

「그래도 본부인헌테를 대기는군」

하고 금봉은 이 말을 들을때에 질투가 일어낫다。금봉이가 삼청동 온 뒤에도 광진은 삼사차 큰 집에서 자고 왓다。흑은 제사라 하고 흑은 시골서 손님이 와서 섬봉서 잣노라고 하엿다。 그러나 금봉은 본마누라 하고 동침하리라고는 생각도 아니하엿다。

「다섯달이라、이애보다 섯달나종이로고나」

하고 금봉은 한동을 쉬엇다。

그러나 금봉을 괴롭게 하는것은 광진의 본마누라에 대한 질투뿐이아니엇다。그보다도 더 큰것이 잇섯다。만일 광진의부인이 아들을 낫는다면 금봉의 뱃속에 잇는 아들이 광진의상속자가 될수는 업다는것이다。그러코보면 금봉의 지금까지의 꿈은헛꿈이 되고마는것이다。광진의부인이 딸을 낫코 금봉이가 아들을 나으면、둘이 다 아들을 나흐면——이러한 생각을 금봉은 노이고 노엿다。

그날 광진이가 삼청동집에왓을 때에는 광진은 술이 취하엿섯다。금봉은 광진을 만나는대로、

「그런 경사가 어듸잇서요?」

하고 빈정대는 모양으로 우섯다。

「무슨 경사?」

하고 광진은 취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우물거렷다。

「부인께서 태긔가 게시다고요 참 그런 경사가 업서요」

하고 금봉은 바르르 떨리는몸을 억지로 진정하엿다。

「누가 그래? 어느 미친년이 와서 또무에라고 짓거렷서?」

하고 광진은 좀 냥패하야 입부러 더 취한양을 보인다。

「그런 깃븐 소식을 내가 알면 큰 일 나나요?」

하고 금봉은 새츰해진다。

「큰일나지 큰일나」

하고 겸연쩍은드시 금봉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것을 금봉은 몸을 뿌리처물러안즈면서

「점잔흔 양반이 무업 이러시오?」

하고 북바처오르는 분통을 꼭꾹 나려누르면서、

「오늘은 어째 오셧서요? 부인헌테서 주무시지」

하고 똑바른 활살을 광진에게로 쏘앗다。

「이건 머야、질투를 합시는게야?」

하고 광진은 멸시하는드시 금봉을 향하야 피피 웃는다。

「원 천만에말슴이오。내가 무에라고 남의 내외 의조케 사시는것을 질투를 해요? 벼락맞게。그러치아니해도 밤낫 저주를 밧고 잇는걸。부인께서 기다리실테니 어서가보시란말이지」

하고 금봉은 일어나서 마루로 나가버린다。

정선이가 자다가 엄마와『아저씨』의 큰 소리에 깨어서운다

이로부터 금봉에게는 다시 입덧이 돌아오는것가탓다。아주구미를 일코 몸은 날로 수척하엿다。책장도 안 들처보고 피아노도 안울렷다。광진이가 와도 웃음만이 버려지는일이업섯다

八月一日부터

好評의三中井洋服既成部大開催

算盤はづれの思ひ切った大處分デー

背廣三揃 15.00 18.00 23.00 25.00 28.00

白セルズボン 3.90

變りチヨッキ 3.80

三中井의既製品은 裁斷이…美妙 洋服地이…多種 寸法이…豊富 갑이…低廉 스타일…新

京城 三中井

國産石油

燈油 揮・發油 輕油 重油 モビール油 マシン油 ダイナモ油 タービン油 シリンダー油 スピンドル油 グリース油 車軸油 アスファルト

特約店募集

今般弊社에서 日本石油株式會社製品特約販賣店을 左記各郡主要地에 設置코저하오니 希望하시는 諸位는 來八月十五日까지 申込하심을 仰要하오며 特約條項은 照會次第로 詳細仰報하겟나이다

區域 義州 龍川 鐵山 宣川 定州 龜城 朔州 昌城 碧潼 楚山 渭原 江界 厚昌 慈城

新義州府本町四番地 日本石油株式會社平北總代理店 國境商事株式會社 電話長 三一二番 三一一番 三一二番

新民謠 鴛鴦歌 新二八靑春 鮮于一扇 포리도ー루 레코ー드

當選謝禮

學校評議員選擧에不肖當選되엿에際하야有權者諸位에게깁히感謝를이오며紙上으로謝禮를드리나이다

忠州郡老隱公普校評議員 李錫玄

剛本齒科院厚德을謝禮

謹啓 生은貧寒한家勢의少年이라日常幾十錢의勞賃으로僅僅糊口를圖謀하던바不幸히齊傷의橫厄으로上顎前齒五六本을折傷한重症의慘狀이나聽齒와療治할餘裕가업서悲運을呪詛할뿐이러니當地齒科專門申龍雨氏의治療入治를全然無料로接待하신鴻恩을蒙하야全治完人이되엿기其河海之澤을紙上으로敢히謝奚하나이다 江原道東草港 具然弘 白

朝報案內

鮮人看護婦及見習募集 朝鮮人看護婦及見習生을募集하오니有意하시는분은左記로照會하시압 京城西小門町四七 田中丸病院

少女募集 滿十四、十五、十六歲程度의食堂少女二十名을採用함(但日本人五名) 鍾路韓靑ビル二階 韓靑食堂

七百圓以上金融 一絶對秘密嚴守一

電話賣買 京城電話仲買店 東一銀行下側 電話光化門二九七九番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四九番

筆生 遠近男女不問自宅机上에서自手로輕히快되는趣味잇는勤人學生婦女子에게好適한일年中無休永久潑行眞實한분에게依托함葉書로申込次第詳報함 大和國郡山町 山鹿文庫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〇 金銀白金高價買入 金寶堂 吳健

洋劇專門 浪花館

二十九日より四日間 銷夏納涼短期サービス週間 大衆料金三十錢均一 上映順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監督ノーマントウログ 主演ラニーロス ▲風の接吻

二、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監督ヘンリイハサウエイ 主演ゲイリクーパー 助演フランチヨットトーン リチヤドクロムウエル ベンガルの槍騎兵

次週封切パ社超大作二名篇 ▲戀のページエント ▲カレッヂリズム

近日同時封切 ▲ベビイお目見得 ▲勝利の朝

電話增設廣告

謹啓 從來本車部에서 電話四四番、一五五五番兩臺를使用하여왓삽더니 다만諸位의愛護하여주심을蒙하야業務는日益隆昌되옵니다따라서 電話二臺로는不足의이잇기로最近二四番을增設하엿사오니倍舊下命하여주심을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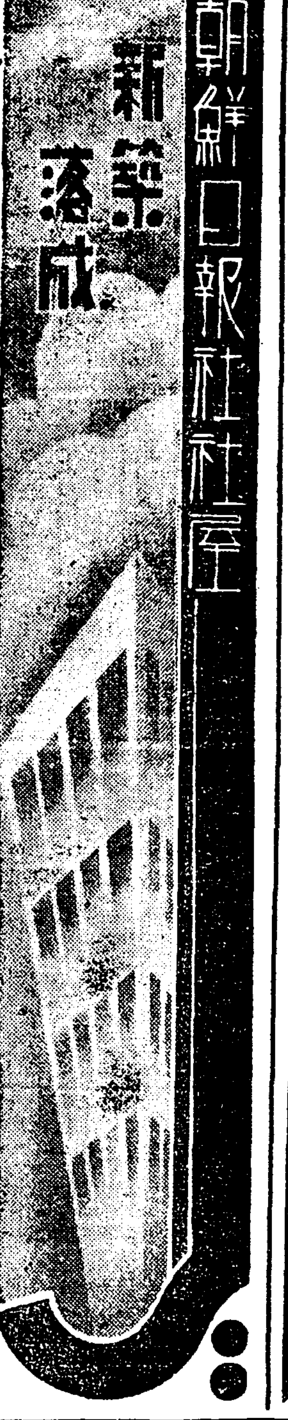
平壤旭町 平安タクシー 電話 三四四 一五五五 二四番

民謠界의女王 新專屬 李銀波孃 入社第一回作品

新民謠 關西千里 (日暮) 지는夕陽

OKEH 오케ー레코ー드

오케ー레코ー드에限하여서는 鮮一樂器店으로로! 京城府鍾路二丁目韓靑빌딩 (電話光五七七番)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先生御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 갈려지는것가티몹시아플때!!

●바눌로쑤시는것 가티골치가아플때!!

그리고 머리가아프지안는때도 過度한讀書로 眠이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리터분할때나 술을過飮하고餘毒으로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만일頭痛으로 腦을보는때가게시거든이지마시고노ー신을한봉마차보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랏든가? 하는것을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짐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두어두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 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商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ー신과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와잇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登錄商標 帽子 印잇는 ノーシン 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福民靴 元寶口鞋 全膠皮齊口鞋 全膠皮齊女鞋 全膠皮花旗鞋 全膠皮花民鞋 全膠民坤五鞋 全膠民坤眼鞋 長靴 豆靴 五眼靴 運動靴 洋襪子 齊口襪子 冬夏各種鞋 皮膠批發

哈爾濱道外許公路九十號 三和護謨株式會社哈爾濱出張所 道裡電話六一五六

絹綿布 諸雜貨 貿易商 北雄基本町 鄭鳳宇 電話三〇四番

合德

汚川金融組合合德支所

唐津郡合德面雲山里 合德面長 金喆鎬

唐津郡合德面雲山里 金鍾奭

唐津郡汚川面大浦里 方載舜

唐津郡合德面雲山里 劉亨烈

唐津郡合德面新里 朴炳烈

唐津郡合德面成東里 朴成來

唐津郡順城面中方里 宋鎭瀅

唐津郡順城面城北里 姜善弼

唐津郡合德面雲山里 絹紬布木洋品百貨 合德和信連鎖店 河奎泓

唐津郡合德面雲山里 朴漢奎

唐津郡合德面雲山里 齒科醫院 曺圭浣

唐津郡合德面雲山里 湖西醫院 崔

唐津郡順城面中方里 宋宗源

唐津郡新平面南山里 尹 一

唐津郡 孫

唐津郡合德面大合德里 郭 寶

米國新銀行法案

②……檢討重要諸點

다시 法案에 明記되지안흔 세가지의 큰問題는 銀行制度의 明確化와 一、支店銀行制度와 定期、貯蓄預金의 分類와 投資의問題이다 이것은 別問題로하고 現在法律에 依하야處할수업는 緊急狀態는 現在에 잇서도 또 今後에잇서도 생길것으로 생각지안는다 그럼으로 第二部에 聯邦顧問會에 依하야 提出된 修正을 안버들면 그 第二部에 對하야도 나는 斷然 反對를 表明치 안흘수가 업다 다음에나는 總裁과 責任에 對하야도 中央貨幣局이 가지고 잇는 注意를 喚起하랴고한다 도라보건대 政府에 依한中央銀行 統制의 歷史는 外國에 잇서도 또 米國에 잇서도 거의 成功치못하엿다 그때를 드러보면 獨逸의不健全한 貨幣政策은 獨逸國民을 經濟的한主因이잇는것은 勿論이나「라이히스뺑크」에 對하야 政府의손이 미친때문으로 貨幣價値의 崩壞는 一層 助長되엇다 다시 獨逸이나 佛國이나 그通貨減價의 主要한原因은 政府가 中央銀行으로부터 借入金을 할수잇는곳에 잇섯다

×

北米合衆國의 一九二六年으로부터 一九二九年의 인플레이슌時代에 地方準備銀行의理事는 經濟情勢의 分析에잇서는 聯邦準備局理事의 多數보다도 一層 正確 또는 賢明하엿다 一九二七年에 市加古의 聯邦準備銀行은 準備局의低利政策 即 이것은 그뒤 一九二八、九年의 空景氣時代를 맨든것이라고 만흔 사람들은 미덧슴에 反對를 明하고 다시 一九二九年의봄에는 聯邦準備銀行理事會는 株式市場의 無能한 投機를 抑制하기爲하야 再割引率을 올린것을 몃번이나 議決하엿스나 聯邦準備局은 그때마다 再割引을 取消한다는 理由로 此等의 要求를 拒絶하엿다 以上 나는다만 한나라의 最高의 機關가 모혀서 眞實히 行動하여도 그것까지 判斷하는 잘못이 잇다는 한가지의 實例를 말하엿슴에 不過하나 聯邦에는 나는 이런 統制에 對任과의 中央集權化가 不然理論으로는 잘 實行될는지는 큰 疑問을 가지게되다 만약 聯合가 이法案 第二部를 可決하면 나는 이 法案 第二部가 日本의 銀行制度를 根本的으로 變化케하는것을 指摘하야 두라고한다 이것은 한나라의 貨幣政策을 任意로 左右할 機限을 準備局의 손에 맷기는 것으로 勿論 이法案의 目的은 通貨統制의制度 그것을 規定한것으로는 생각하나 이것은 大藏省과 한데붓처서옴직이고 잇슴에 不過하고 다만 一般의決定에 基하야 幾十億弗이라는 莫大한資金을 政府에 金融케할수잇게되엇다 이와가튼 權限은 議會의認可乃至는 指令을 要치안코 約七十五億弗이라는 現在의 二倍以上에 該當한 通貨膨脹을 可能케하는것이다

×

現在의 聯邦準備法은 그當初에 잇서 信用及通貨의 供給은 農、工、商業의 需要에 應하야 自動的으로 伸縮하도록 組織을 與한것이다. 그런데 近年에잇서서는 信用의 管理統制라는方向에 向해잇다。 金融的으로나 産業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役員은 聯邦準備局의 理事가될에依하야 政府의 代表者가될뿐아니라 國內經濟事情에 日常接觸을 保有하야 이것을 熟知하고잇는 聯邦準備銀行代表者이어야한다。 이러한事由로 나는聯邦顧問會의 如左한 勸告에 贊成하고저한다。

一、大藏長官及 銀行局長은聯邦準備局의 理事가됨을禁止함

二、準備局理事는 五名으로減員할것

三、總裁及理事는 十五個年間 在任한 何等의事件에依하야서만 遠憲한注意와 審査가잇슨後 解任한 但七十歲에至하면遞

四、聯邦準備銀行總裁는 聯邦準備局의 承認下에 聯邦準備銀行의 理事에依하야 任命됨 되後에는 總裁는 年年 準備

五、聯邦準備局의 理事와 四名의準備銀行總裁—十二名의總裁中에서 選出된—에依하야構成된 委員會에 對하야 割引率、準備率을 決定하고 各準備銀行의 公開市場政策을 指揮하는 權限을 賦與되는것 假令 右機能을 遂行할 委員의 選任에依하야 그것이잘되다드래도 그機能에는 限이 잇서야할것이다

×

如斯하야 나는 聯邦顧問會의 다음과가튼 勸告에도 贊意를 表한다

一、公開市場委員會는 加盟銀行의 準備率을 預金總額의 三〇%以上으로 增加할 權能을有치안는것

二、公開市場政策을 實行할수잇슨 이는同時에 聯邦準備銀行이 政府의 債入缺陷을 메꾸키爲하야 聯邦債를 購入할수잇는 範圍를 限定케되는것

此等의 限界는 平常時에잇서서는 勿論이오 戰爭及緊急에 當해지기쉬운 緊急事態에 直面하야서도 準備를 統制할에 充分하다

以上과가튼 理由로 나는모든健全한 資産은 그流動性의 如何에 不拘코 再割引할수잇다는 銀行法案第十條B項 字句를 修正하고 再制定하자는 聯邦顧問會의 勸告에 贊成한다

이 準備法을 끗칠에 當하야 나는 이法案에잇서서 가장 重要한 二點을 再强調코저한다 그 一은 前述한와 가튼 機能을 實現하는 準備局의 獨立自主를 擁護할必要 그二는 限界點의 必要 換言하면 限界內에서 準備局은 움직이어야 할것이다 (終)

鰮油의定量入札에 價格不滿으로非難擡頭

生産者에매우不利케된다고 理由는自由取引不能

總督府에서는 各道鰮油肥組合의 要望에 依하야 六月부터 鰮油의 定量入札을 實施하얏는데 이制度는 每月 二十一日以降 月末까지의 出廻品에 對하야 미리 賣渡數量의 申込을 식히어 이것을 總督府에서 競爭入札을 하는바 落札이되는 境遇에는 申込人은 價格에 不滿이잇서도 現品을 줄 義務가 잇게되므로 不定入札과가티 自由 取引이 되지못하는 關係로 最近 賣渡 申込이 極少數에 達하는 現狀이어서 이制度가 實施되든 六月에 比하면 어름업시 申込이 적어젓고 一般生産者는 定量入札을 조와하지 안흘뿐만 아니라 每月二十日以後 月末까지는 朝鮮에잇서서는 鰮油의 公定市勢도 나지못하는것으로 定量入札에對한 非難의소리는 날로 노퍼지는 現狀이라고한다

統制는有名無實로

◇……正量入札은今月에도不振 結局에廢止를難免

鰮油共販의 新方式으로 本漁期부터 共販實施의 隨意入札과 倂行의 定量入札制는 六月下旬의 第一回는 旣報함과가티 再入札를 하엿는데 商談不調로 끗내이고 다시 七月分의 第二回入札은 各三道의 申請高도 겨우 八千七百餘罐에 不過하고 二十七日 朝窒外四社에서 入札을 施行하엿스나 各地에 分散으로 買方이不振하고 再入札를 하엿스나 結局 豫定에達치못하야 또 第二回 定量入札도 不成立으로되야 今年度부터의 統制新形式도 有名無實의狀況으로 廢止論도 擡頭한다

上海橫行商務書記官으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今年上半期의 貿易은 다음과가티 輸入에잇서서 英米가 各各三割二分、一割二分의 減少이엇다 그러나 日本만 三割一分의 增加를 示함은 注目할 價値가 잇다即 今年上半期의 貿易總額 八億四百八十萬元 輸入五億四千五百四十萬元 入超額二億八千六百十萬元으로前年同期에 比하면 輸入額四分三厘 輸出額三分五厘 入超額五分一厘의 各 減少이엇는데 上半期의 日英米三國貿易은 다음과가다(以下單位千元)

輸入		比前年
日本	七七、七〇〇	三割一分增
英國	五二、四〇〇	一割二分減
米國	一〇七、四〇〇	三割三分減
輸出		
日本	九、九五〇	二割九分減
英國	九、七〇〇	一割二分減
米國	四、七〇〇	一割三分增

新小麥의 市勢强硬

投機側買進

出廻期에 드러간 朝鮮內新小麥은 米價高에 刺戟된 投機側의 買進으로 强調를 持續하고 黃海道物은 産地十三圓五十錢의高價인데 製粉側은 八月의 出廻最盛期를 압두고 依然 待機의 狀態이다 그러고 關係各道도各各增産計劃을 實施하고 京畿道는 檢査小麥五萬石(前年二萬石)의出廻를 期待하는터이라고한다

對中輸出增加

三割二分의增加數字

【電通東京電話】日中關係의 好轉以來 中國에 對한日本品의輸出은 激增하든바 二十九日 在

朝鮮關係의 預金部融資

◇……今明間中決定

昭和十年 第二回 預金部 運用委員會는 兩日中、再開 公共團體、耕地整理融資 償還期限延長外 外地 普通事業 資金의 新規融通件을 附議할터인데 이朝鮮關係 內容은

一、朝鮮普通事業資金 新規融通 四百萬圓

二、産米增殖資金 百三十萬圓

의二者로 右協議次、鑛者 理財課林田氏이 渡東中이든바 三十日歸任하엿다 新資金의 四百萬圓은 水産組、融資와 産業組合에 對한것으로 産米增殖資金은 旣報함과가티 農會의 肥料共配事業 開始에 伴하는 增額이다

朝郵의新運賃

仁阪五十六圓 八月一日實施

朝鮮郵船會社에서는 八月一日以後의 鮮航同盟會가 機能을停止한뒤의 同社의 運賃은總督府와 協議한結果 鮮航同盟會의 現在 契約 荷主에對하야 運賃 (阪仁五十六圓)을 全荷主에對하야 適用키로 決定하엿는데 一日 實施後의 實績을보뒤 再協議키로 되엇다

米日爲替弱保

【京城廿九日發聯合】廿九日의 米日爲替는前日에比較하면賣 廿九弗廿七仙으로一仙安 買廿九弗廿四仙으로二仙安

▲東京爲替(卅日)

對米 賣廿九弗十六分三 買廿九弗四分一

對英 賣一志二片八分一 買一志二片卅二分五

▲大阪爲替(卅日)

對米 賣廿九弗十六分三 買廿九弗四分一

對英 賣一志二片八分一 買一志二片卅二分五

米穀倉庫 在米漸減

五十三萬餘石

米倉現在의 各支店倉庫在米高는 合計 五十三萬八千八百三石으로 前月末現在보다 一萬六千八百六十五 前年同期에比하야 六十五萬四千五百五十一石의 各減少인데 各支店別은 압에와가다 (單位石)

▲釜山	一二〇、九八二
▲馬山	三、四〇八
▲麗水	八一八
▲木浦	四六、九七二
▲群山	一四〇、三二〇
▲江景	三、三四三
▲仁川	一五三、〇五三
▲鎭南	六九、九〇七
▲合計	五三八、八〇三

綿業大統制

特別委員會를設置

紡績聯合 再擴張

未決定으로

【電通大阪電話】紡績聯合會는二十九日 열린 委員會에서 日本綿業大統制에 關하야 別委員會의 設置를 決定하엿다 이것은世界各國의 輸入防遏과 內外需要의 減退로 再次深刻한不況에 빠질情勢에잇슬뿐만아니라 國內에서도 紡績과 綿工聯의 生産業者間及 生産業者 輸出業者間에 意見이 一致되지못하야 綿業關係者의全國的統制가 必要케되엿슴으로紡績聯合會는 大統制案에 依하야 輸出의 綿絲布同業會、日本棉花同業會 綿工聯과 連繫하야 日本綿業의再組織을 하라는것이다

【大阪電話聯合】紡績聯合會委員會는 廿九日 目下紛糾를 거듭하는 新錘同題、操短再擴張問題 等綿業統制의三大問題를 附議하엿는데 新錘同題는 增錘各社의反對로 操短再擴張問題는 鐘紡等의反對로 決定에 아니되고 操短再擴張問題는 先物關係及 操短不變更의原則에서 十一月以後의操短을 可及的 빨리 決定하고 이로因하야 市價를 引上하자는 强硬論도 잇는바 大紡績中에는 所持製品의在庫品激增、輸出減退、低價原棉을 모두 消費하여버렷슴으로 再擴張도 不得已하다는會社도 잇고 委員을 뽑아서 다시 考究키로되엿는데 市場은 擴張될모양이라고한다

南郵合同解決?

【東京電話聯合】지난 二十五日 發明된 南洋郵船의 南洋海運合同拒否에 狼狽한 遞信省當局은 合同反對의 急先鋒인 板谷監査役을 招致하야 그 意向을 聽取하엿는바 兩者間에 考慮할餘地가잇슴을 發見케되엇슴으로 目下石原、郵船、商船의三社가 南郵兩大株主의 持株二萬千三百株의 轉執을하라고 交涉이 開始되야 進行中이다 그래서 紛糾를 거듭하든 南郵의 合同拒否도 不滿解決케될모양이라고한다

朝鮮水産協議

廿九日부터續開

各道水産會 協議會는 廿九日 午前九時半부터 京城長谷川町 朝鮮水産會館에서 열고 總督府水産課及 京畿道産業課에서 關係官이 臨席하고 各道水産會 提出事項 廿一件을 모두 議了한뒤 同五時 閉會하엿다 그러고 第二日인 卅日은 午前十時부터 同所에 續開하엿는데 三十日의 協議事項인 朝鮮水産會 提出의 議案은 다음과가다

一、朝鮮水産物 對滿宣傳會計劃의件

二、對滿水産宣傳、滿洲商人招待計劃의件

三、第五回 西部日本水産大會並 全國水産大會에 關한件

四、漁業者遭難救濟事業實施計劃의件

經濟界消息

○朝鮮製煉第一回總會=朝鮮製煉會社에서는 二十日 午前十時十五分부터 殖銀 會議室에서 第一回定期株主總會를 열고 第一期諸決算案을 附議하고 原案대로 異議가업시 可決하엿다 그러고 當期欠損金은 六萬四千六百十七圓五十八錢으로 이것은 全部後期에 繰越하엿다고

○殖銀定期總會=殖銀에서는 八月十五日午前十時부터 第三十四回定期總會를 열고 諸決算案及利益金處分案을 上程할터인데 株主配當은 年九分이라고

○和信連鎖店第三回見本市終了=지난七月廿五日로부터 열니엇든 和信連鎖店第三回見本市는 七月卅日로서 끗이낫는데 이見本市에出席한 各地方連鎖店 代表者는 二百五十餘名에 達하엿다고

國際瓦斯管協定

【東京電話聯合】今年三月期限滿了의 日本鋼管과 國際瓦斯管신되케트와 다음과가티 協定하엿다

一、國際瓦斯管신되케트는 前協定과 가티 日本及滿洲國과의 需要一割을 輸出할일

二、日本鋼管은 前回의 協定을 關印市場에 輸出하기로 되엿는데 今後는 關印뿐만아니라 中國 暹羅兩國에 對하야도輸出함을得할일

『인푸레』景氣 果然暗轉?

輸出增進과 赤字公債 消化力은 日本『인푸레』景氣의 二大支柱이엇스며 이때문에 今日까지 所謂 惡性『인푸레』의 發現이 阻止되어 잇섯는데 지금은 輸出貿易이 停頓的 傾向이 나타낫고 赤字公債의 消化가 疑問視되기에 至함에서는『인푸레』景氣는 暗轉코저 하는中이라 할것이다。그러나 漫能的으로『인푸레』景氣 謳歌의 單純한 樂觀論은 반드시 訂正하고 新認識을 가지고 檢討하여야할 時代가 到來하얏다는 말이 잇다。

强氣의前途觀

非常時局에잇서 政府豫算이 膨脹될수업는것이 事實이오 赤字公債도 當分 減하지안흘것이니 金融緩慢 一方이겟스며 다만 急激한 金利低는 惡性「인푸레」가 起하기 때문에 이것을 抑制키爲하야 모든 工作이 잇슬것으로 金利는 穩健히 漸低될것이다。國際關係와 經濟關係로 金融가 잇고 또는 新設과 增資拂込等으로 投機資金이 涸渴되어 積極的으로 買進치 못하여서는 모양이오 軍事費에 對하여서는 公債漸減方針과 相反되는 事情으로 增稅가 問題되리나 그리 悲觀할것이 아니다 勿論 樂觀할일은 아니지만 歐米에 比하야 日本의 稅金은 重稅가 아니니 多少의 增稅는 걱정없이 업다하야 强氣的解釋으로 前途를 占치는 사람도 잇다

產金株訂正高?

產金株는 相當한 値下가 잇섯스나 換金의必要가업거던持久하는 것이 조흘가한다 猶限가리 變하는 世態이니 二、三年後의일을 豫斷할수업스나 金塊市勢의 先高가 豫想된다면 產金株는將來性이 잇슬것이다。目下 東京의 金市勢는 日銀買入價格가치 떠러지고 京城은 朝鮮買入價와 거의 同價로 떠러지엇스며 倫敦金塊도 七磅〇志高에서 低迷인터이나 歐洲金本位가 動搖中으로 究意 平價切下가實現하면 英國으로부터 資本이大陸에 向하야 流出하게될으로歐의 軟調를 難免이오 金塊市勢의 反騰을 促할것으로 보인다 從하야 產金株는 訂正高로 볼이 妥當하는觀測이 잇다。

今日財界 (三十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〇、二四	一八低
大阪期米	先限	三一〇	三〇低
正三等米	一石	二九、六〇	不變
東京一等白米		三〇〇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一斤 假在米			[illegible]

◆市中金銀價

	賣	買
金 一匁	十二圓六十錢	十二圓五十錢
銀	二十八錢〇厘	二十八錢五厘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一三七、二〇	[illegible]
日產	六九、四〇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二〇二、〇〇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三〇六	[illegible]
고무 現	[illegible]	[illegible]

商況 (三十日)

株式 一進後에 伸惱

前場昂騰 今前場은 高價取組인 當限의집을 버서노은好感에다가 各「힐」四十三弗二分一로 遞騰되것으로 買氣를 誘致하야 好勢이엇스니 卽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一圓七十錢高인 百三十七圓二十錢 日產八十錢高인 六十九圓四十錢 大新八十四圓丁朝新二十五圓四十錢 日鑛新三十六圓五十錢 滿鐵 六十三圓六十錢 同新三十錢高인 二十七圓十錢에 各大引되고 鋼管九十四圓丁

▲東新 一三六(寄) [illegible]

後場伸惱 後場은 東新百三十七圓三十錢 日產六十九圓丁 寄付後 鋼重하야東新九圓九十錢 日產八圓八十錢에 大引하야 伸惱이엇다

期米 昂騰後에 反落

前場狂瀾 昨後場 阪地三十一圓二十四錢止와共히 二十九圓五十二錢에 揚寄止한 當市場은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
日產	三七	五一	五一、八三〇
東新	四二	五二	七五一、四〇〇
大新	三三	六〇	七六九七〇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京南鐵道 [illegible] ▲朝日釀造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東拓 [illegible] ▲朝鮮石油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株式高에 伴하야 小口買進이오 市況은 內外債共히 强堅하얏다

市場六感

株

高價取組인 當限平殖納會로 집이가벼워진데다가 『스틸』의 連騰되어 今前場은 一轉昂進▲新市까지 조터高價가 잇슬것도갓다 ▲藏相의 公債漸減方針聲明에 對하야 軍部도 別로反對는 안호나 다만 財源이업스니 他方法에 依하면 조치아니냐고 暗暗히 增稅를 비취기 때문에 市場은 이 念慮가 不少▲明年度는 增稅念慮가 업다는등 增稅를 할것가트면 現內閣더러 退却하라는등 떠들어 오던터이라 國防國策을 徹底케하기 爲하야 早晩 增稅가 問題가 되겟스니 이것을 미리 覺悟하여야만 할일 ▲軍需株만은 가장 安全한 投資라고 보는것이 常識이나 그런생각으로 사다가 結局 實目標나 되지안흘가 걱정하는 사람도 不無

米

警戒中에잇든 石黒島의 颱風은 中國 上海方面으로 進行하는모양이니 朝鮮이나 日本內地에는 何等의 影響이업시되엿다▲이번만은 安心이나 압으로 重疊한 天災가 어떠한 現象을 招來할지 누가 알랴?▲政府는 朝鮮의 保管米를 拂下하지안코 日本內地로 移出하기로 決定한모양▲仁川서 二萬五千石 群山서 四萬六千石 合計七萬千石을 移出하기로되고 其他地方에도 幾許間 移出하리라 한다▲그러지안어도 前途需給의 不安이 업지아니한데다가 政府의 方針으로서 移出을 하게되니 供給의 不安은 더욱 더욱 深刻化 ▲딸아서 持米側의 方針은 又一層 鞏固하야 容易히 賣却치 아니하렷다 ▲그러고 보면 米價의 前途는 數段昂騰을 告하고야말 모양 ▲今朝의 反撥은 阪地當限의 納會關係도 엇지안키니와 大體는 在米品薄을 機로한모양 ▲그러데 來十月限은 적어도 百丁下하는 되리라고한다 何如間 下鞘일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下鞘發會後에는 押目買物이 번뜩할것을 可知

當限一代記

步幅三百四十丁

去五月一日에 三十一丁上鞘으로二十八圓二十錢에 發會한 七月限은 先限時代에 五月一日現在日本內地의 穀在米가 三千七百四十二萬七千七百六十九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八百二十四萬九千六十二石의 減少를 示하엿스나 豫想보다는 增加라하야二十六圓八十五錢까지 低落하엿스나 中限時代에 入하야는 在米調薄說은 島有에歸하고 前途需給의 不安說과 渡米調達難의說이 擡頭하야 二十七圓〇五錢에서 二十六圓八十六錢까지 下押하엿슴으로 籾殘昂騰의 步調로月末 二十八圓十六錢의 高價를示한後 〇三錢으로 當限에 入하엿는데 時日이갈사록 端境期의需給不足을 憂慮하는 買物이 續出할 뿐아니라 堂島市場의 唯一한 硬派로 自負하는 田中眞一派의 猛烈買進으로 實로 三十圓二十四錢인 近年稀有한 高價를 示한後 三十圓大臺를 中心으로 一張하다가 結局 二十九圓九十四錢에 納會되엿다

受渡內容

仁川期米當限受渡價格은 三十圓丁 石數七千五百石으로 渡方과受方은 如左하다

▲渡方 ◯一、五〇〇石 ◯五、二〇〇 ◯二〇〇 ◯一〇〇 ◯三〇〇 ◯三〇〇

▲受方 ◯二、七〇〇石 ◯一、〇〇〇 ◯三、六〇〇 ◯二〇〇

各地當限受渡高

	石數	價格
大阪	四六、〇〇〇石	三〇、〇〇錢
東京	三、三〇〇	三一、一〇
神戶	四、〇〇〇	三〇、〇〇
京都	二、一〇〇	三一、一〇
金澤	四、三〇〇	二八、一〇
下關	二、〇〇〇	三〇、〇〇
群山	四、五〇〇	二九、七八
木浦	一、九〇〇	二九、九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情報【大阪電話】

大阪七限受渡米 四萬六千石은 受方 田中眞、高橋、渡方 山種、外地堤正米側으로 市中正米側의 持米는 一掃되고 入限高은 十萬石을 買鞘한 高値에對하야 實方은 小口取組로서 波瀾激甚이 豫想되다

大阪四市場納會

▲賣方 東京側 正米側處分 中 ▲買方 地場 乘換 東綿側

綿絲、棉花、人絹、砂糖四市場은 今前場으로써 納會하고 今日後場부터 明日前後場共히 當限受渡로 例休이다

各地正米

京城閑散

在米薄으로 强調持續이나 取引은 閑散인 丸仁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丁

仁川不勢

期米는 良好調를 呈하나 極度의 不買로 거의傍觀狀態인一方 持米側은 賣氣를 보이나 期米와의 採算關係로低價에는 賣放치안코 取引이依然 閑散한 丸仁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五錢

趙俊鎬米豆阪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釜山反落

市場出廻二千五百叺、定期의反撥을보고도 極端한買行不立으로 所持의態度가幾分緩和되엇슴으로 糯米不足인此際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一圓丁 雄町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 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南浦不變

定期의 反撥과 難穀高等으로 所持의 態度强하야 取引不振이나 底意强硬을 呈한 丸ナ龜尾三等二十九圓六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木浦强含

依然日本內地와의交涉의 狀態로買氣업스나 在庫拂底와 定期强調로 氣配不變이지만 强含商狀을 呈한丸木多藏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一圓丁 雄町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 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群山續伸

出廻一輛、奧地의糯米不足濃厚로 出廻가업고 繼續하야 日本內地의 買氣가可望이업는狀態로 取引이 極度로閑散이나마 實物薄과 定期高로底意强硬을 呈하야 氣配五錢高인 菱ク三等三十圓 五錢四等二十九圓八十五錢 一等白米 十三圓二十錢

大邱保合

產地市中共히 枯渴이甚하고 賣物側도 定期關係로取引이令然行치안허 底調하야 休商狀態인 角ク三等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勝이라 氣配二十錢低로 滑消化되어 取引이 一〇五叺이잇섯다 角ク三等三十圓五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錢

金.銀.白金 高價買入 地方注文代金引換發送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株式 卅日

◆朝取短期

	前寄	前引	高値	低値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前寄	前引	後寄	後引
東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淺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賣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卅日

◆朝取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二九、九六	三〇、六七	三〇、八九
後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朝鮮內各地期米 (前場 後場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玄米	一一五、五三七
白米	二、七五三、九八
朝鮮玄米	[illegible]
白米	[illegible]
台灣	一、四〇六〇六七

◆日本各地期米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名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融 三十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金属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三十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지카코期麥 ◆錫油沖價 ◆錫搾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商品 卅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現物糖(S.T) 賣買中値二一・一〇錢

馬尼刺 七、八月 五厘七二仙二分一